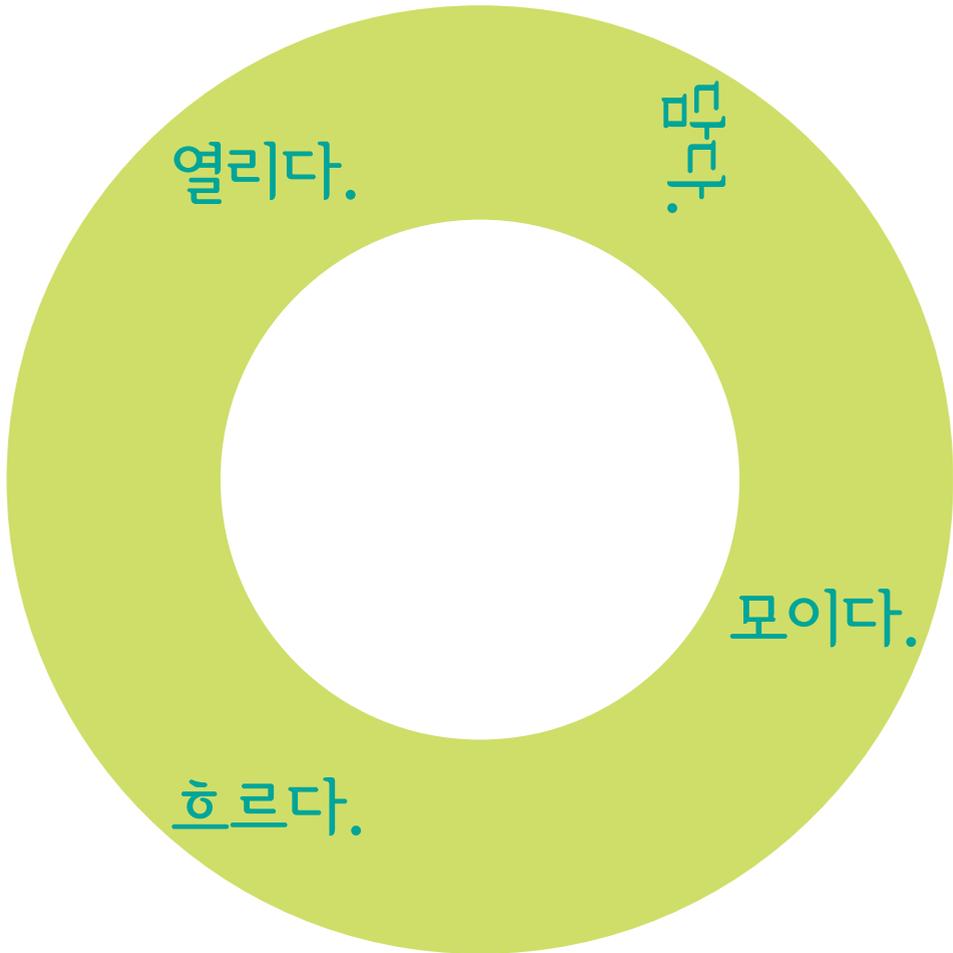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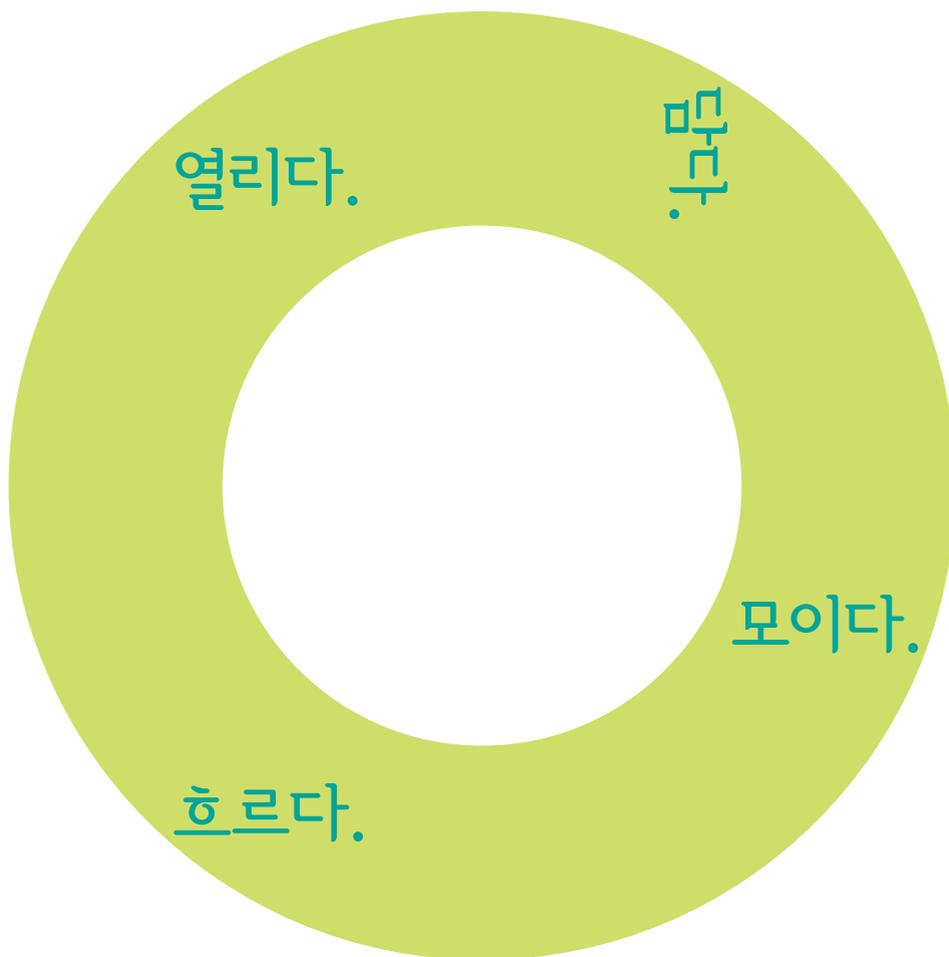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0760-01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 여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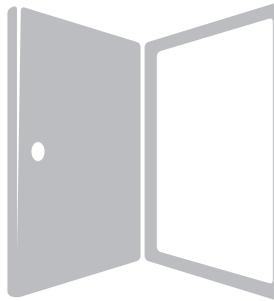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데이터 광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공유·소통의 원칙 아래 열린 시정을 실천해온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와 IT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새로운 개념의 공공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완성해나가겠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열리다 · 열린

- 010 열린 데이터 광장이란?
- 019 열린 데이터 광장,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023 열린 데이터 광장, 이렇게 열렸다!



## 담다 · 데이터

- 034 열린 데이터 광장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 040 열린 데이터 광장 제대로 이용하기



## 모이다 · 광장

- 046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 052 공공 데이터, 어디에 활용되고 있을까?

# Contents

## PART 2

호르다

### 시민 활용 사례 스토리텔링



#### 대상

062 서울이 궁금해? – 서울의 열린 정보 오아시스 \_ 고태운

#### 최우수상

066 데이터로 변화되는 서울 시민의 생활 \_ 신윤정

071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앱을 만들며 \_ 김선철

#### 우수상

075 International Open Data Day 후기 \_ 김학래

078 항상 우리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친구 공공 데이터 \_ 박진수

081 서울시민을 더 스마트하게 해줄 데이터는? \_ 오정환

#### 장려상

084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디딤돌이자 샘물이 될 것 같아요 \_ 장영준

088 피아니스트, 서울시 공공 데이터로 생활을 연주하다 \_ 이준화

091 아름다운 데이터 \_ 고미령

094 우리 가족의 행복한 주말 고민 \_ 김은숙

098 서울은 ICT 종결자 \_ 강경흠

100 자전거 타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같이 타재! \_ 이순용

103 당신과 함께했던 오늘, 6월 19일 성민이의 일기 \_ 황성민

106 개발자의,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시스템 \_ 우주용

108 '꿈'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_ 신예은

111 믿을 만한 정보를 평등하게 \_ 최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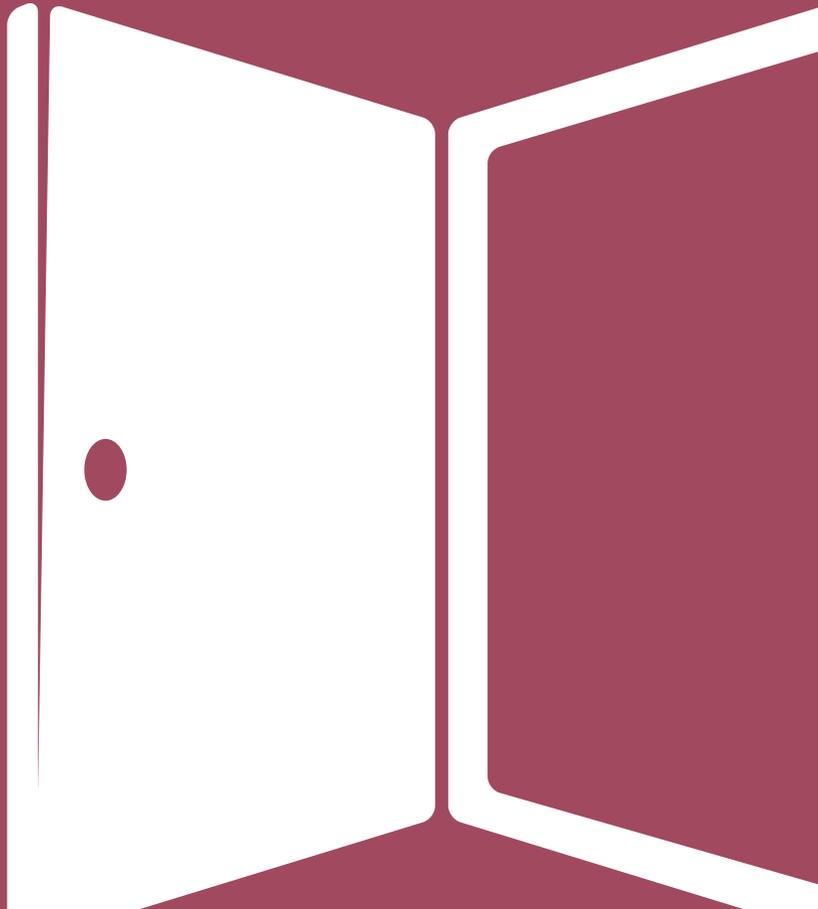
PART 1

# 열리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서울시가 개방하고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새로운 공공 데이터 서비스!

‘열린 데이터 광장’은 시민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이란?

공공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공공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속한 데이터를

우리 모두의 품으로.

서울시의 열린 시정 2.0과 함께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이

소통과 참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 공공 데이터가 열린다, 희망이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화, 공간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물들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 데이터들 중에는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면 더욱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그런 공공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개방해 놓은 곳입니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공공 데이터가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하나의 문을 통해 제공됩니다. 그 문을 통하면 시민들은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유용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민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풍성해질 것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은 그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꾸준히 펼쳐온 희망서울의 큰 그림 속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도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알찬 희망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 공공 데이터란?

2013년 10월 31일자로 시행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열린 시정과 열린 데이터 광장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9년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국정운영 방침으로 발표하고 ‘데이터통합저장소’를 오픈하여 Raw-Dat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0년 7,000여 개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으며, 호주에서도 2011년에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등 열린 정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열린 시정 2.0’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열린 시정은 시민의 중요한 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그 중심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정부 3.0’ 시대를 열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에서 한 발 앞서 왔던 서울시는 그동안 고민하고 노력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과 연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Com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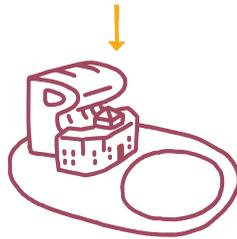
“열린 시정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시정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열린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 박원순 서울 시장(2011. 10. 열린 시정 2.0 공약 발표문 중에서)

---



열린 시정 2.0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 참여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활용성 증대



공공 가치 창출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손 안에 잡히는 쉽고 빠른 공공 데이터 서비스

열린 데이터 광장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는 기업, 학교,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방된 공공 데이터들은 Sheet, Chart, MAP, Open API, File, Link 등 편집과 활용이 용이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 데이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분실물 정보  
Sheet 형태로 제공



통계성 데이터  
Chart 형태로 제공



도서관, 자전거 도로 등 공간정보  
MAP 형태로 제공



민간과 개인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데이터  
Open API 형태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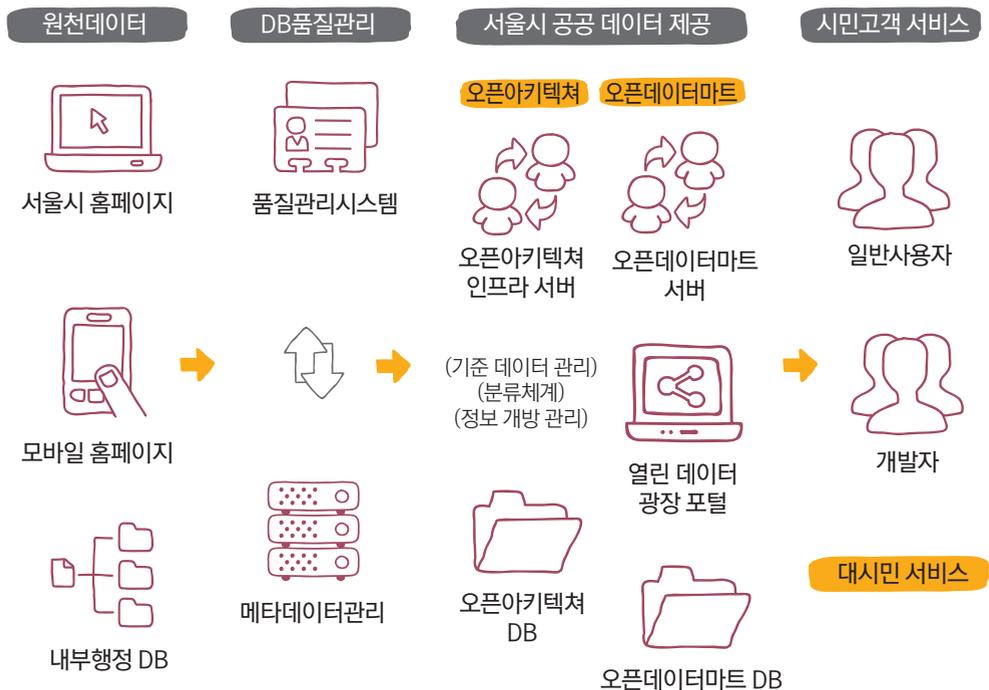
유동인구, 사업체 정보 등 보고서  
File 형태로 제공



각종 정보 조회, 예약 서비스  
Link 형태로 제공

## 실시간·주기적으로 서비스되는 시스템 구성과 인프라 구축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 개발자들은 공공 데이터가 가진 유용성과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 데이터 광장은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원천데이터 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서울시가 보유한 데이터를 내부행정 DB에서 분류한 후 데이터 품질관리를 거쳐 시민고객(개발자, 일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공공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서울시 담당 개발자들이 내부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등록 관리, 서비스 유형별 조회, 부서별 개방 현황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한 소재의 공공 데이터 세트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이용자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고객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 내가 직접 서울시 교통정보 앱을 만든다?

2009년 12월,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유주완 씨(현 서울버스 모바일 대표)는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서울시내 버스 정보를 안내하는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ARS를 이용하다가 불편함을 느꼈고, 순전히 자신이 편리하게 쓰고 싶어서 서울시내 버스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유주완 씨는 말합니다. 이 앱을 사용해본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물론이고 서울시와 교통망이 연결된 경기도의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기 전이어서 앱에 제공되어야 할 일부 정보가 차단된 것입니다. 그러자 앱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완성 단계에 이른 2013년, 이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시민 생활에 유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찾아가기 :

인터넷 포탈 검색창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치거나, 사이트 주소 [data.seoul.go.kr](http://data.seoul.g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공공 데이터 개방 지침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일원화된 데이터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다양한 데이터 제공방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시민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저작권자 표시조건만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공공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열린 데이터 광장,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서울시가 가진 공공 데이터,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는 없을까?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 데이터,  
어디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앱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Open API,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을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릴 방법은 없을까?

열린 데이터 광장은 이런 물음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없을까?’의 물음표가 ‘있다!’의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공공 데이터가 여러분을 향해 열립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사전 준비 이상무! 공공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만들기

“공공 데이터 개방이 뭔가요?”

“그걸 꼭 개방해야 하나요?”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데이터 개방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방침이 정해지고 열린 데이터 광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현업 공무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제공해줄 공무원들 스스로 공공 데이터 개방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개방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절차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 개방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마인드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 데이터 개방 작업이 처음 시작된 2011년부터 열린 데이터 광장 1차 플랫폼이 구축된 2012년까지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공공 데이터 제공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만들자!

###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공공 데이터 개방 업무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개방에 대한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제도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를 아무런 제약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었고,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문화를 선도해온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이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던 각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공공 데이터 개방을 법률로 정한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Comment

---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입니다.”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2013. 10. 30.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중에서)

---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살펴보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에게 공공 데이터 이용권 보장



국민, 기업이 공공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범정부 차원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공공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공공 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공공 데이터 이용문화 조성



공공 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의 업무상 면책 조항 마련

## 열린 데이터 광장, 이렇게 열렸다!

미국의 data.gov

영국의 data.gov.uk

그리고 서울의 열린 데이터 광장.

선진국에 비해 그 출발은 늦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더 많이, 더 충실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공 데이터 서비스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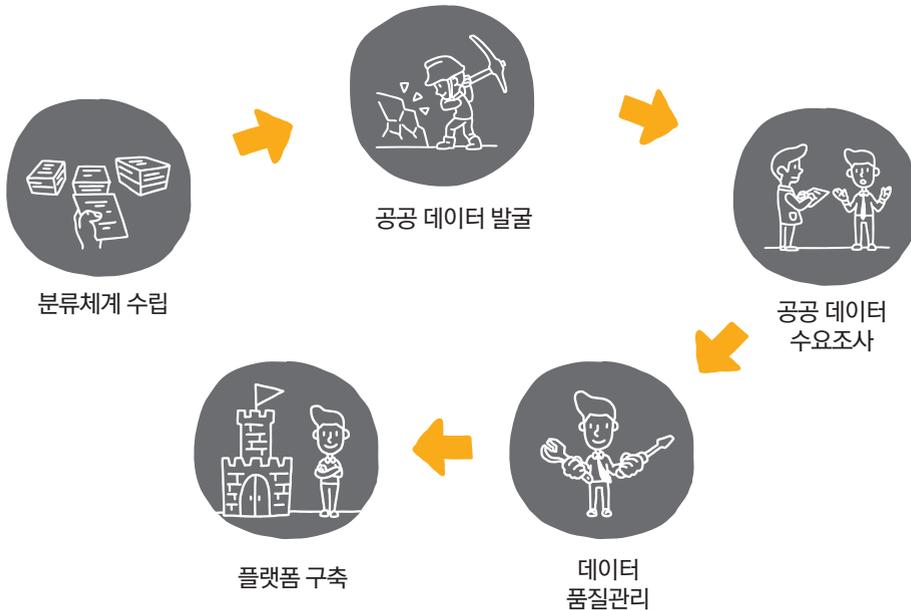
열리다·답다·모이다

## 시작이 반,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수립

성공적인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먼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목록을 만들고, 그중에서 개방할 데이터를 골라내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 데이터 개방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러한 개방 진행 과정에 맞춰 서울시는 공공 데이터의 분류체계 수립, 발굴, 수요조사, 품질관리, 플랫폼 구축의 세부 과정에 대한 계획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세웠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 뼈대를 세우자, 공공 데이터 분류체계 수립

공공 데이터의 분류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수요자 관점에서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분류해야 서비스 활용성이 극대화될 것인가를 고민한 것입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분류 모델은 시민들이 한 눈에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 공공 데이터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참고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데이터 광장에 딱 맞는 분류체계를 찾아냈습니다.

서울시 보유 공공 데이터를 교통, 안전, 환경, 일반행정, 도시관리, 보건,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의 10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총 49개의 하위분류를 두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 사이트를 방문하면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 데이터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교통	교통시설, 교통운영, 대중교통, 물류수송, 자가교통
일반행정	재정/예산/세무, 정보통신, 정책, 통계, 행정
도시관리	건축, 도로, 도시계획, 부동산, 상수도, 주택, 하수도, 하천
교육	평생교육, 학교교육, 학술
안전	소방, 시설물 안전, 재난
산업경제	경제, 고용노동, 국제교류, 산업, 에너지 자원, 창업/벤처
복지	가족·다문화,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일반복지, 장애인복지
보건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
환경	공원녹지, 기상, 대기환경, 생활환경, 수질환경, 토지환경, 폐기물
문화관광	관광, 문화, 체육



##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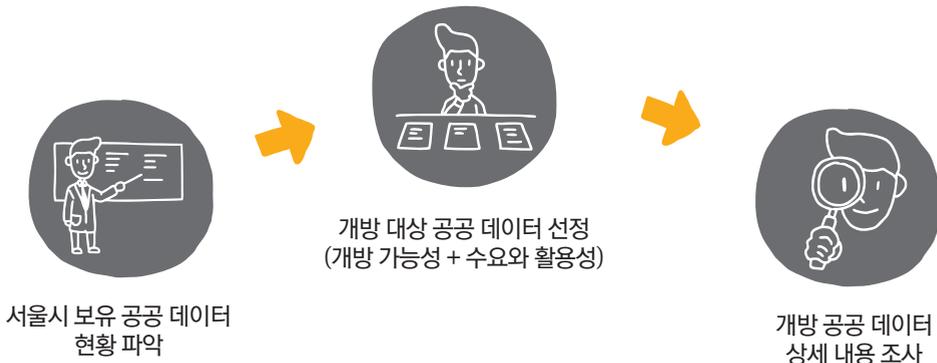
열리다·답다·모이다

### 숨어있는 원석 찾기, 공공 데이터 발굴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활용성이 높은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발굴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각 시스템별로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는 400여 개의 내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업무부서별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중복된 데이터는 아닌지, 혹시 지금은 소멸되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소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거쳐 그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1차로 추려낸 것이 60여 개였고, 여기에 공공 데이터로서 수요가 많고 활용성이 높은 것을 추가로 목록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150여 개의 시스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공공 데이터 발굴 과정]



## 쓰임새를 알자! 공공 데이터 수요조사

어떤 데이터가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골라 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수요자와 제공자,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보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민간 수요자, 기업 수요자, 학교·연구소를 대상으로, 제공자 관점에서는 포털, 이동통신사, 앱개발센터, 민간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 데이터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22만 개 등 SNS상의 수요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 시민들이 요구하는 활용성 높은 공공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수요조사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공공 데이터 목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데이터 활용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신뢰를 높여라, 데이터 품질 관리

개방될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 수요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개방 업무 협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였습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 기법인 ‘프로파일링’을 통해 개방 대상인 공공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해 부서 담당자와 실제 오류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방 가능 시스템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단계별 품질 관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과정]



**Comment**

“시스템에 등록된 목록과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실 것을 현업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참여와 소통의 장 만들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지침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실시한 1차 구축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기술을 바탕으로 서버, 디스크, 보안시스템, 시스템 SW 등 공유 DB 통합 관리 인프라와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개방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발굴을 통해 작성된 150개의 시스템 목록을 10대 주제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150개 시스템 전체를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서울시 내·외부의 데이터를 실시간,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계·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데이터를 Sheet, Chart, MAP, Open API, File, Link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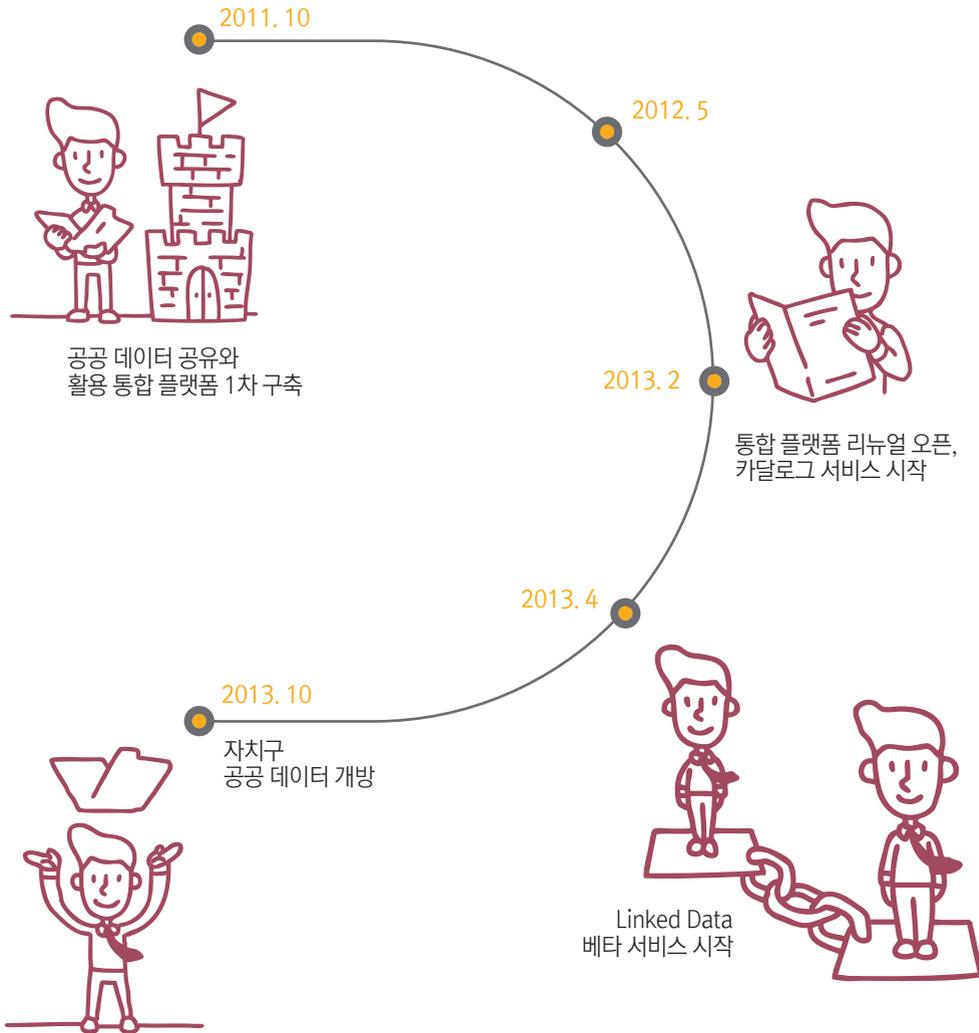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 다채널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 제안, 개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능을 갖추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행정 정보 공개 사이트인 정보소통광장, 그리고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를 링크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1차 구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여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리뉴얼 공공 데이터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린 데이터 광장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 타임라인]



## PART 1

# 담다.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교통, 문화, 교육, 보건 등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더욱 알찬 공공 데이터를 담아내겠습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한강공원의 공간정보,

어디에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알고 싶은데,

검색으로 가능할까?

음식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 모범음식점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을까?

해답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알토란같은 공공 데이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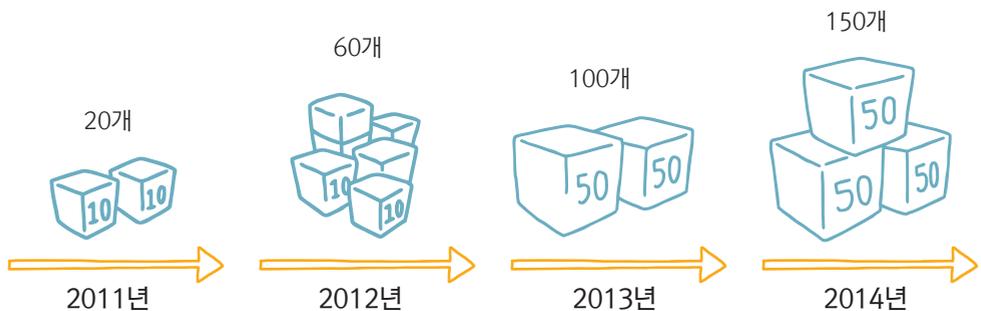
##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 데이터가 한가득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교통, 안전, 환경, 일반행정, 도시관리, 보건,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10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유한 내·외부 시스템 400여 개 중에서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통해 발굴한 150개의 시스템을 2011년에 20개, 2012년에 60개, 2013년에 100개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차질 없이 개방 업무를 진행했으며, 2014년까지 개방 데이터 목록에 들어있는 150개 시스템을 모두 다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중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열람하고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주간인기, 월간인기, 전체인기 항목으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공공 데이터는 유동인구정보, 지하철역 승차차 인원, 공공 WIFI 위치 정보, 시장마트 정보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강공원 공간정보, 지하철역 검색 기능 등 최근에 등록된 정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 데이터 단계적 개방 목표]



\* 위의 수치는 개방 시스템의 누적 총수를 의미함.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카달로그 서비스, 링크드 데이터 등 제공 방법도 다양하게

“공공 데이터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공공 데이터도 함께 서비스 받을 수는 없을까요?”

“어떤 공공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모든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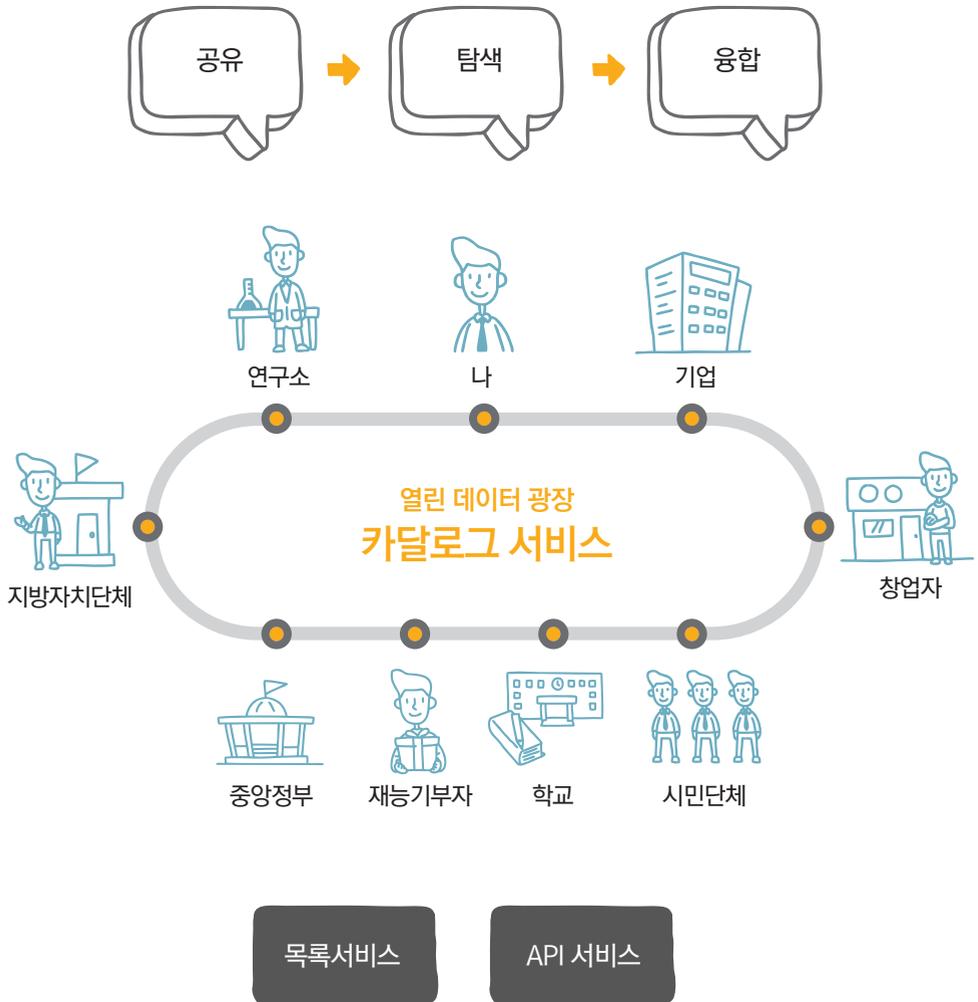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열린 데이터 광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결과를 2013년 2월 리뉴얼 오픈에 반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국가공유자원포털의 Open API 서비스 목록을 ‘카달로그’라는 명칭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은 앞으로 카달로그 서비스를 타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시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성 데이터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는 폐쇄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이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넘어 공공기관, 기업, 민간이 서로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경계 없이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오픈 데이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은 우리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이 그 중심에 서있겠습니다.

한편 2013년 4월부터는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드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개방한 공공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와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확장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 카달로그 서비스 개념도]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지자체 최초로 자치구 공공 데이터도 개방

서울시 공공 데이터부터 자치구 생활정보까지 한 번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2013년 2월부터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 데 이어 25개 자치구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대문구와 구로구를 시범 자치구로 정해 2013년 11월부터 위생분야 중 식품 위생업과 공중위생업 공공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시범 자치구의 위생, 지역산업, 문화, 환경, 축산, 보건 6개 업무분야 공공 데이터 전체를 개방하고, 하반기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의 6개 업무분야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구청 데이터 개방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열린 데이터 광장의 구축 노하우가 적용된 플랫폼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별 데이터는 자치구 플랫폼에서 개방·관리하고, 25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는 열린 데이터 광장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개방합니다. 시민은 구청에서 개방한 데이터를 서울시 또는 각 구청의 개방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구청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구청의 개방 업무 효율성과 시민의 편리성을 고려한 서비스인 동시에 자치구의 개방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는 대부분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친근하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Comment

---

“적극적인 공공 데이터 개방이 요구되는 요즘 추세에 발맞춰 구청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력으로 이끌어낸 이번 구청 데이터 개방은 지역별 편차 없는 데이터 개방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데이터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고품질의 활용성 높은 데이터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2013. 10.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

---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 제대로 이용하기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서울시 버스 정보’ 앱을 실행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친구와 만나서 둘러볼 ‘걷고 싶은 길’을 검색하고,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친구를 위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대수 조회’ 정보를 전송합니다.

저녁 때 이용할 ‘서울시 야간도서관 정보안내’도

잊지 말고 챙겨야겠습니다.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멋진 하루,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 Q & A로 알아보는 열린 데이터 광장



Q.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앱 만들기,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앱 개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열린 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새롭고 편리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 개발로 재능기부를 하셔도 좋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지닌 상업 아이템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스마트한 시티 라이프의 필수품인 다양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나요?

A. 열린 데이터 광장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활용갤러리' 페이지에 시민들이 서울시에 서 제공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다양한 앱 목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앱을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Q. 서울시에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언제나 환영합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가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 '참여소통/아이디어 제안' 항목에 내용을 등록해주시면 검토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Q. 열린 데이터 광장, 민-관을 연결하는 공공 데이터 허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열린 데이터 광장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은 카달로그 서비스, 링크드 데이터,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개방 사이트 연계 등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정부 3.0도 만나 보시고, 민간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와도 소통하십시오. 열린 데이터 광장은 모든 공공 데이터로 통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 서비스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파악하기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어떤 공공 데이터가 서비스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0대분야별 주요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을 살펴봅니다.



교통

지하철역별 승하차인원,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인원, 대중교통수단별 이용현황, 등록업체 통계, 5678역출구별 관광지 정보,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등



일반행정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조직도 및 직원업무,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 목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사 계약 관련 정보, 각종 재정/경비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록정보, 공공 WIFI 위치 정보, 행정데이터 표준용어 정보 등



도시관리

정비사업 관련 정보, 조합입찰공고, 가로판매대 공간정보, 구두수선소 공간정보, 도로굴착 공사 정보, 건설알림이, 도로시설물 정보 등



교육

위탁형 학술용역 목록 정보, 우리말문제 등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안전

-----  
연화칼슘보관함/제설함 위치정보, 방재시설 현황, 서울시 강우량 정보, 서울시 하천 수위 정보 등



산업경제

-----  
인터넷쇼핑몰 정보, 시장마트 정보, 가격안정모범업소, 전통시장 정보, 생필품 가격 등



복지

-----  
생활안내 Directory 정보, 장애인시설 정보, 노인복지시설 정보 등



보건

-----  
자치구 공중위생업소 현황, 자치구 식품위생업소 현황, 자치구 행정처분 내역, 자치구 식품수거검사, 자치구 모범음식점 현황, 서울안심먹거리 목록 등



환경

-----  
대기오염도 정보, 오존/미세먼지/황사 경보발령 현황, 사토반출/입 정보, 기상관측 정보, 대기환경 정보, 야생동식물 정보 등



문화관광

-----  
한강공원 공간 정보, 인력개발센터 교육강좌, 디자인심의 신청 정보, 여성가족재단 행사 정보, 문화재 정보, 공공서비스예약 정보, 문화공간 정보, 지하철 예술무대 공연일정, 간행물 정보, 도서관 정보 등

## PART 1

# 모이다.

민간, 공공기관, 단체, 학계에서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협력하기 위해 모입니다.  
소통의 광장, 참여의 광장, 공유의 광장이  
온라인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창의적인 생각들이 모아지길 바랍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공 데이터가 개방된 후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열린 시정의 관계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아질 시민생활에 대해서,

누가 묻지 않아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날마다

소통과 참여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나날이 늘어나는 공공 데이터 활용 실적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활용도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영국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은 웹 발전을 목표로 국가별 웹 경쟁력 등을 측정해온 비영리기구 월드와이드웹재단인데, 세계 77개국 공공 데이터의 개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준비성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행력과 영향력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3. 11. 20일자 주요 일간지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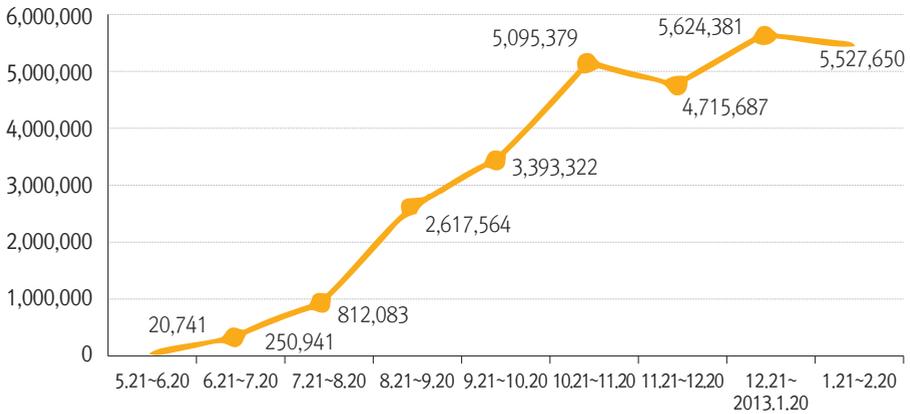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공공 데이터 개방과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 서울시의 경우, 많은 사전 준비 작업과 접근성을 높인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시민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처음 오픈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서비스 및 데이터 이용건수는 첫 한 달간 2만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월 현재 누적 이용건수는 267배가 증가한 540만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도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이나 기관에서 하루 평균 15만여 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월별 활용 현황]



## 다양해지는 시민 협업 사례와 민간 행사 지원

서울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을 구축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 협업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2년에 오픈 커뮤니티인 '코드나무' 개발팀과 협업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Open API 개선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코드나무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모임입니다. 코드나무와의 협업은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민간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떤 홍보보다도 큰 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픈 커뮤니티인 '열려라 공공데이터' 민간 페이스북 그룹은 서울시 보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동네 보육원' 등의 앱을 개발 중입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 데이터 관련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코드나무가 진행한 '공공 데이터 해커톤 캠프' 행사에 서울시가 협찬을 했습니다. "Let's Share"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



장이 격려차 방문하여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International Open Data Day 행사가 전 세계 7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행사는 Open Knowledge Foundation Korea(kr.okfn.org)가 주관하고, 열린 데이터 광장과 서울시 공공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후원했습니다. 오픈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 데이터 광장, 코리아데이터허브(thedatahub.kr) 등 국내에 개방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구축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픈된 데이터를 수집, 정제, 연계를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활용성 높은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밖에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각종 앱 공모전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Comment

“데이터의 개방도 중요하지만 오픈 데이터가 일상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방된 데이터의 정확성, 유용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International Open Data Day in Korea와 같은 행사가 고품질의 활용성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임성우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2013. 2.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

### 공공 데이터 개방 우수사례로 주목받는 서울시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은 민·관·학계의 높은 관심 속에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워크숍과 포럼, 협의체에서 서울시 사례가 꾸준히 소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부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데이터 광장 구축 등 공공 데이터 개방 노력을 인정받아 2012년도 ‘공공정보 보화 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에서 공공정보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 데이터 세상

열린 데이터 광장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일부 개발자 그룹을 제외하면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눈에 띄게 그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기에는 우리의 문화적 토대가 여전히 부족한 듯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은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공공 데이터의 질이나 개방 프로세스, 공유 플랫폼 인프라 등은 선진 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공공 데이터 개방 건수에 있어서는 선진 오픈 데이터 사이트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단순 비교하기에는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우리의 짧은 공공 데이터 개방의 역사를 생각하면 결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룰 것이 많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공공 데이터, 어디에 활용되고 있을까?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어디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활용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2012년 5월 첫 오픈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데이터 활용 실적과 시민 반응을 소개합니다.

## 공공 데이터의 이유 있는 변신, 다양한 시민 편의 서비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사이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앱과 홈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갤러리에 등록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던 대표 앱을 소개합니다.

### ‘스마트 지하철’ 앱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에서 단연 활용도가 높은 지하철 정보를 이용하여 만든 앱입니다. 지하철 호선별 노선도, 역사별 경유노선, 열차도착시간, 출입문위치, 분실물센터 연락처 등을 제공합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조회’ 앱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GPS가 켜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주차장부터 찾아서 정렬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19개 주차장의 현재 잔여주차대수를 일괄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차장을 클릭하면 지도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서울시 야간도서관 정보안내' 앱

Kate & Lu Awesome 프로젝트팀이 서울시 야간도서관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Open API를 이용하여 개발한 무료앱입니다. 각 구별로 야간도서관 운영시간과 위치 등을 안내합니다.

---



## '자전거보관소' 앱

서울시의 자전거 공간정보를 이용한 자전거보관소 앱입니다.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펌프, 식수대, 화장실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자전거 지도를 통해 자전거 길을 알 수 있고, 위성 지도를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공공 데이터 모음' 앱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등록된 여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 시간 평균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스모그 측정, 한강 공원 물 마시는 곳 위치, 서울 공공 Wifi 위치, 서울 자연 학습장 정보, 서울 시장 및 마트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 '서울시 문화재' 앱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각 구별로 소재한 문화재를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스마트앱 공모전 개최(2010~2013)

서울시에서는 열린 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스마트앱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등록된 공공 데이터 1개 이상을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는 대회로, 2012년에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총 123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400% 증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3회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앱은 '가격 안정 모범업소정보'를 이용한 '전통시장' 앱입니다. 지도 기반의 전통시장, 시장/마트 정보와 농수축산물 물가 정보, 서울시 지정 안심먹거리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밖에 대공원 동물 정보를 이용한 '서울동물원 가이드' 앱과 문화재/공원 정보를 이용한 '웰컴투 문화로' 앱이 최우수상을, 공원/전통시장 정보를 이용한 '반@서울' 앱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4회 대회는 '서울 앱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16개 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3회 서울시 스마트앱개발 공모전**  
2012. 6. 1(금) ~ 8. 31(금)

종류	수상인원	시상액
대상	1	300만원
최우수상	2	100만원
우수상	3	50만원
장려상	30	20만원

**공모대상**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용 앱 개발

**공모자격**  
당사자인 누구나 참여가능(대학생, 장애인, 주부, 팀 등)

**공모기간**  
2012. 6. 1(금) ~ 8. 31(금)

**공모주제**  
서울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아이폰OS, 안드로이드OS, 태블릿PC, 스마트TV용 앱 개발)

**서울시 공공정보**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평가절차**  
내용 개척성(40%)  
앱 개발 계획서(40%) 기반으로 심사  
2차용 개척성(10%) 제품 시연(10%)  
이벤트에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구상 상테스트 실시

**시상방법**  
3개월 개편기간 평가  
유용성, 편의성, 특이성, 편의성 등을 평가

**제4회 서울 앱 공모전**  
2012. 6. 20(화) ~ 8. 17(토)

종류	수상인원	시상액
대상	1	300만원
최우수상	2	100만원
우수상	3	50만원
장려상	30	20만원

**공모기간**  
2012. 6. 20(화) ~ 8. 17(토)

**공모대상**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용 애플리케이션

**공모자격**  
당사자인 누구나 참여가능(팀 10명 이하)

**공모주제**  
스마트폰용  
최상(100만원),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신청방법**  
최우수상(<http://www.seoul.go.kr/app>)에서 앱 개발 및 참가서류 인계(100명 이하)

**평가절차**  
심사는 개발, 유용성, 특이성 등 제분야를  
인도스마트폰 공공데이터를 1개 이상 활용하여 개발  
서울시 및 정부의 공공데이터 인건 OPEN 사업 활용하여 Made-in-Korea 앱 개발 가능

\* 모바일을 위한 앱을 제작하기 쉽습니다.

# PART 1

열리다·담다·모이다

## 공공 데이터 활용 Top 10

열린 데이터 광장 개설 이후 가장 많이 활용된 공공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 〈Sheet Download(Top 10)〉

순위	공공데이터명
1	지하철역별 승하차인원
2	공공WiFi 위치정보
3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인원
4	공공체육시설정보
5	생필품가격
6	일별 기상관측정보
7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목록
8	시장마트정보
9	개인서비스요금정보
10	노인복지시설정보

< File Download(Top 10)>

순위	공공데이터명
1	유동인구정보
2	금연구역정보
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4	SNS 기반 서울시 공공정보 수요조사
5	공중화장실 공간정보
6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7	공공정보 개방 경제적가치 측정
8	자전거도로 공간정보
9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인원
10	방재시설현황(구호소)

< OpenAPI – Service(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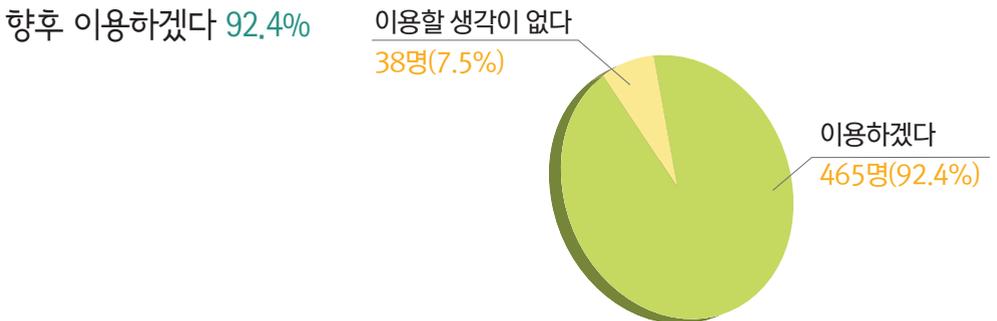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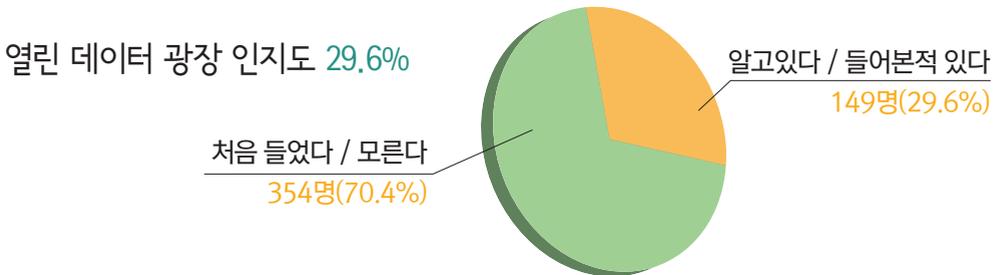
순위	공공데이터명
1	역외부코드로 지하철역별 열차 도착 정보 검색
2	개별공시지가
3	공공서비스예약 상세정보
4	교통 돌발상황 조회
5	기간별 시간평균 대기환경정보
6	관측소별 실시간 기상관측정보
7	노선별 지하철역 검색 기능
8	문화행사정보
9	실시간 자치구별 대기환경정보
10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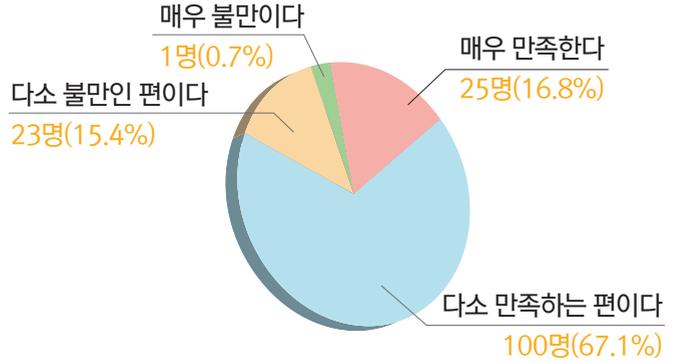
열리다·답다·모이다

###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한 시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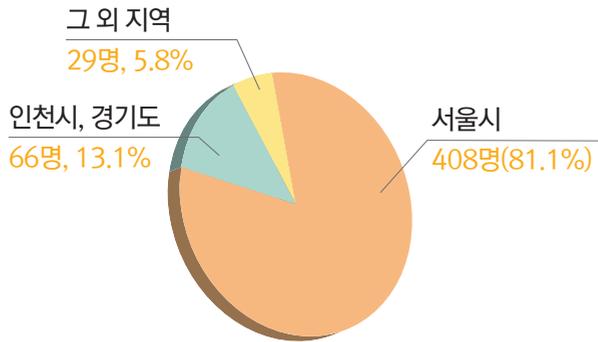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2012년 9월 18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반 시민 대상으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9.6%의 시민이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그중 83.9%가 열린 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향후 계속 이용할 의사에 대해서는 92.4%가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런 설문 조사 결과를 이후 홍보활동과 플랫폼 리뉴얼 작업 등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해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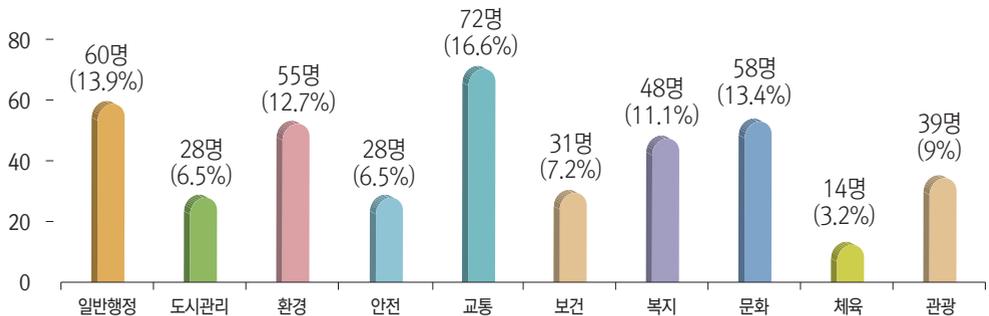
사용자 만족도 83.9%



수도권 거주 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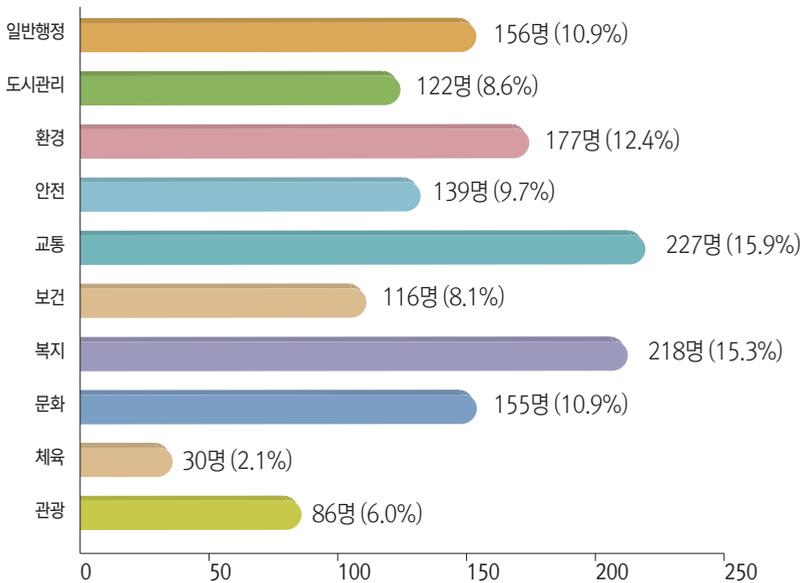
이용 데이터 분야



## PART 1

열리다·답다·모이다

### 향후 요구 데이터 분야



#### Comment

“시민들을 위한 정책, 참으로 편해 보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니, 이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도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 SNS 시민 반응

## PART 2

# 흐르다.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흘러갑니다.  
열린 데이터를 통해 보고, 쓰고, 느낀 것을 공유합니다.  
열린 소통의 광장에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서울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개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2  
흐르다

대 상



# 서울이 궁금해? - 서울의 열린 정보 오아시스

고 태 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라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산.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 만난 친구였다.

“하산! 이 시간에 웬일이예요?”

오랜만의 전화라 반가웠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약간 짜증이 난 것도 사실이었다. 간단한 안부인사 뒤에 하산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상 서울에 대한 정보가 급하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난감해서요. 실례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아닌 밤중에 흥두깨라더니 이게 바로 그런 셈이었다. 여하튼 정신을 차리고 자초 지종을 물었다. 요는 이랬다. 터키에도 얼마 전부터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수 사이와 터키 프로리그에서 활동 중인 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의 활약으로 이제는 한류 바람이 한류 열풍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대한 터키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예전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사업을 해온 하산의 회사에 서울 관광에 대한 문의가 계속 오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요청까지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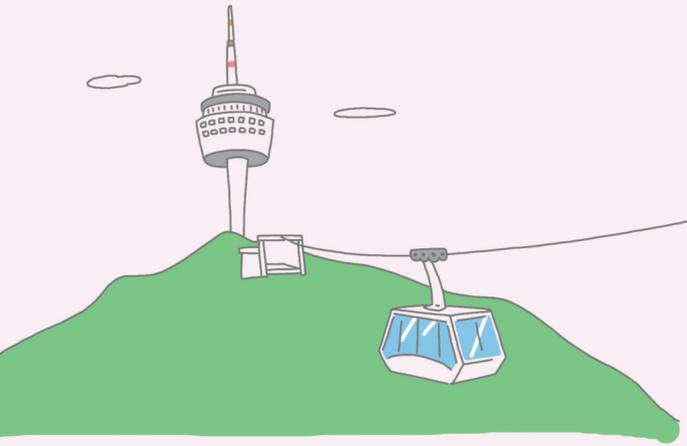
“그런데 정작 저는 서울의 문화 관광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일을 해결하기가 곤란해요. 서울의 주요 문화재, 시설 그리고 교통편 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 도와달라는 하산의 호소였다.

“알았어요.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요.”

밤이 늦어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하산에게 알아봐주겠다고 대답은 시원하게 해놓았는데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서 주어야 할지, 나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한국 관광공사, 문화재청 등 문화 관광에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을 열어보기 시작



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범위도 한계가 있고 이것이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괜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서울에 살고 있어도 모든 곳에 가보고 경험해본 것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덜컥 약속부터 해버린 내 자신에 대한 후회만 커져 갔다.

고민 끝에 서울시 관광자원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이트를 찾아 들어갔다.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원하는 대로 구미에 맞는 자료를 찾기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며칠에 걸쳐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고 링크해서 검색하기를 반복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듯한 답답함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그건 바로 서울시가 보유한 각종 공공 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갑고 또 반가웠다.

드디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가 오픈하는 날! 떨리는 마음으로 사이트에 접속했다.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라 사용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용 또한 서툴렀다. 하지만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살피며 설명을 따라 검색을 해보니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가 소중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시 문화관광 주제·테마별 목록, 그리고 찾아가는 교통편 등 하산이 일전에 내게 전화해 부탁했던 그 자료들이 데이터화되어 등록되어 있었다. 그동안의 고민이 일거에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어떤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고 제공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내가 필요로

하는 서울의 문화관광 관련 자료를 쭉 훑어본 다음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공연·전시 및 도서관 정보도 천천히 살펴보았다. 익숙해지니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아주 요긴하고, 서울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 항목별로 자세히 분류해 놓아 쉽게 정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데이터를 수요자의 구미에 맞게 정렬해 요소요소에서 편리하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장점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곳을 찾았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서울시의 문화관광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과 우리나라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자료를 정리했다. 마치 내가 민간 한류 홍보대사가 된 느낌이었다. 자료를 정리해 하산에게 보냈더니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다.

“이렇게 귀한 자료를 어디서 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필요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산이 너무나 고마워하니 신이 나서 괜히 더 자랑하고 싶어졌다.

“서울시에서 훌륭한 창고를 운영하는데 모두 거기에서 참고했어요.”

“그래요? 서울은 참 대단하군요.”

하산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자료를 찾고 그걸 정리한 것뿐인데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과 한류를 홍보할 기회를 얻고, 이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접하게 된 것은 나로서도 큰 행운이었다. 비록 처음에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서비스와 만나게 되었지만 열린 데이터 광장 안에 있는 소중한 유익한 자료를 보고나니, 앞으로 평소 내가 관심이 많았던 공연·전시와 도서관·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서울 100배 즐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뻐다. 한 마디로 서울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정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셈이었다.

이제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서울과 더 친해지려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서울이 궁금해? 그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들어가 봐!”라고.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



## 데이터로 변화되는 서울 시민의 생활

신 윤 정

내가 공공 데이터를 만나게 된 이야기는 우연히 참가한 ‘데이터 시각화 대회’에서 시작되었다. 데이터 시각화 대회란, 데이터를 받고 3일 안에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작품을 제출하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회였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나도 한 번 도전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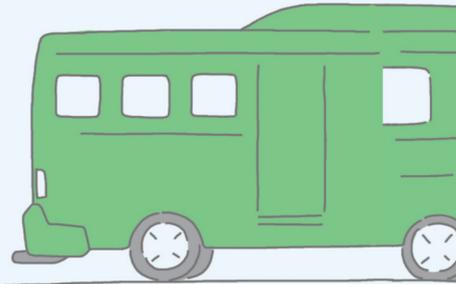
나는 미디어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데이터 시각화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용케 상까지 받게 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 데이터 파일을 열었을 때의 당황스러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내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업이었다. 무슨 데이터인지 파악도 안 될 뿐더러 엄청난 양의 데이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랐던 나는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출력하며 밤을 새우고 서야 겨우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나처럼 데이터를 다룰 줄 모르는 일반 대중은 개방된 데이터 원본을 읽기도 어려운 게 당연한 것 같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점에서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비해 활용이 미미하고 대중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서울시의 개방 데이터가 소수 전문가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대중이 참여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앞으로 데이터

개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이끌어 내는 작품을 만들고, 또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행동도 변화시키고 싶다.

다가올 미래엔 시민의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서비스 기반도 함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내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의 삶 또한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방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의 하루를 가상 일기로 꾸며봤다.



2018년 7월의 어느 날.

아침 8시, 여느 때와 같이 음악이 켜지고 자동으로 커튼이 열린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나는 잠에서 깬다. 매일 아침 '서울 시민이 좋아하는 팝송'의 설문 데이터가 내 오디오로 전송되어, 오늘도 새로운 노래로 기분 좋게 일어났다. 스마트 TV를 켜서 일정을 확인하고 '날씨 데이터' 탭을 눌러 정보를 보니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큰비가 내린다고 한다. 대비 방법을 여니 '서울시 자연재해 데이터'를 불러와 침수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행히 우리 집은 침수 지역이 아니지만, 친구 집이 침수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침수 지역 데이터를 보내주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가야 할 곳이 많아서 노트북에서 '서울시 공유주차장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거리가 어중간하고 시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에서 버스 앱을 보니 10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고 해서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탔다. 버스 안의 모니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시각화 작품을 보았다. 발생지역과 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여름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이 쉽게 상하니 나도 앞으로 장을 조금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 도착하여 한숨 돌리고 '소장품 정보 데이터'로 만들어진 미술관 앱을 내려 받았다. 내가 찾는 작품들을 검색하여 지도를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친구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각까지 한 시간 정도가 비어서 '진행 중인 문화 행사 데이터'로 만들어진 서울 관광 정보 앱을 열어보았다. 마침 가까운 서울 광장에서 공예 축제가 있어서 예술품들을 구경했다. 오랫동안 걷다 보니 구두 굽이 많이 닳아서 '구두 수선소 공간 정보 데이터'를 불러주는 앱을 열어 가까운 구두 수선소에서 구두 굽을 갈았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맛집 앱으로 검색했다. 갈수록 요즘 밖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들어갈 음식점을 항상 '서울 안심 먹거리 정보'에서 조회해 보고 들어간다. 음식점을 조회하면 원산지 정보와 위생검사 결과를 볼 수 있어 우수한 음식점인지 알 수 있다.



점심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분실물 센터 앞의 키오스크에서 분실물의 종류, 크기, 색상 등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보관 분실물 데이터’에서 적합한 분실물의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어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덜렁대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나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관련 앱을 내려 받아 놓았다.

집에 도착하여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차를 가지고 사무실로 갔다. 기름이 별로 없어서 네비게이션에서 주유소를 검색해 보았다. 나는 보통 네비게이션에서 ‘유가 정보 데이터’를 확인하여 평균 가격을 보고 싼 곳의 주유소를 검색하여 간다. 기름을 넣고 다시 가는데 네비게이션의 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 알림음이 울린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네비게이션에서 설정된 경로 정보를 이용해 경로가 같으면 한 차로 이동할 수 있게 알려주어서 돈도 아끼고 교통체증도 완화시키는 좋은 서비스이다. 신원정보와 이동하는 경로의 데이터가 기록되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요즘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도착하여 사무실에 올라가기 전에 로비에 있는 스크린을 잠깐 확인했다. '주식 데이터', '날씨 데이터', '주요 뉴스 데이터'를 한 편에 보여주고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나 화젯거리들을 알 수 있어 재미있게 보곤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요즘 서울에 눈병이 유행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 질병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에 관해 쓴 기사였다. 기사에 의하면 이 연구결과를 활용해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의 출입을 삼가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행병 예방 캠페인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러 가려고 가계부 앱을 열어 쇼핑 목록을 작성했다. 재래시장과 마트의 '상품 가격 데이터'를 불러와 어느 곳이 싼지 비교할 수 있고 장 볼 물건 값이 얼마나 들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재래시장의 물건이 더 싸고 덩도 주고 해서 바쁘지 않을 땐 재래시장에 가는 편이다. 시장 근처에 도착하여 네비게이션에서 '공영주차장 데이터'를 보고 주차를 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재래시장 앱을 열어 지도와 '상점들의 정보 데이터'를 대강 보고 위치를 파악한 후 경로를 정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하기 위해 재료를 다 꺼내 놓았다. 재료의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거나 재료의 정보를 입력하면 '식품 성분 데이터'를 이용해 재료의 양과 종류에 맞는 요리법을 검색해주는 앱이 새로 나와 요즘 새로운 요리를 많이 하고 있다. 칼로리와 영양성분도 알려주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전자책 리더기를 켜서 '국회도서관 서적 데이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과 책을 검색해 읽었다. 책을 읽다 보니 피곤해져서 잘 준비를 하고, 내일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메모 앱을 열어 '우산 챙기기!'라고 크게 적어 놓고 잠이 들었다.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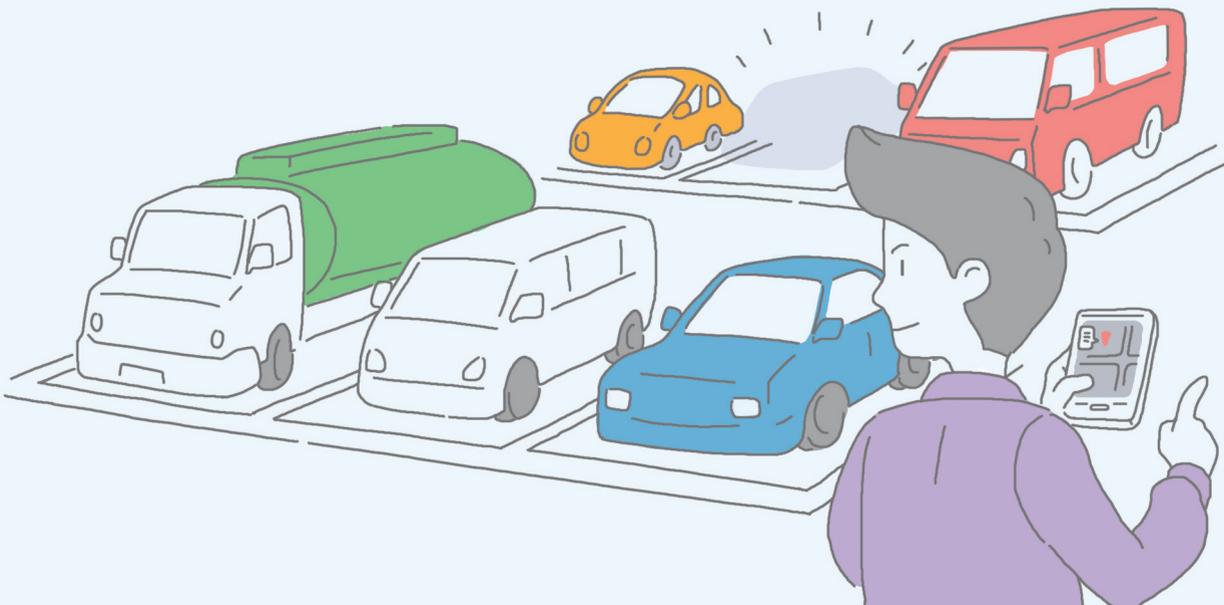


##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앱을 만들며

김 선 철

‘나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까?’

프로그래머인 나는 올해 회사에 이동 신청을 해두고 발령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서 안드로이드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우선 나의 취미인 해외축구 보는 앱이나 프로야구 사이트 앱을 만들면서 서서히 재미를 붙여갔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사이트를 찾게 되었다. 사이트를 둘러보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공공 데이터를 서울시가 개방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열린 데이터 광장의 존재는 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서울시 공공 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공공 앱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프로그래머로서 열심히 해온 만큼 프로그래밍이란 나의 재능을 이용해 재능기부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의 완성된 앱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기획을 하고, 화면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고, 마지막으로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을 나 혼자서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내가 잘 하는 일도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 하는 일도 있어서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도 하나의 도전이었다.

'도전은 곧 나에게 발전을 가져다주리라!'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힘든 과정들에 도전을 감행했다.

일단 기획단계에서는 먼저 구글 마켓 검색을 시작했다. 남들이 아직 안 만든 것 중에서 아이টে를 찾아서 만들어야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열린 데이터 광장에 올라온 공공 데이터들을 살펴보았다. 그중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API였다. 차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항상 주말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가까운 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를 알고 차를 이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다음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정인 화면디자인단계이다. 힘들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디자인했다. 엑셀처럼 표도 만들고, GPS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주차장부터 정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기도 했다. 또한 지도로 위치도 표시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에 바로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다.

드디어 코딩단계. 서울시 공공 API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 API를 통해 주차장 위치를 표현해주기도 했다.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단계였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었다. 정말 좌충우돌해가면서 마켓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 코딩을 마칠 수 있었다.

나름 앱의 형태가 나오니 이제는 테스트 단계로 넘어갈 차례. 주변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앱을 보여주면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용하기 불편하진 않아요? 조금 다르게 고쳐볼까요?”

그렇게 이것저것 고쳐가면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구글 마켓에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날. ‘나도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60명 가까운 동료 개발자들의 부러움도 한 몸에 받았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앱은 19개의 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보다 많은 주차장의 정보와 주차장의 요금정보,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일반 정보를 함께 제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의 두근거림을 주기도 하고, 구글 마켓에 처음으로 등록한 앱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의미는 충분하다.



내가 만든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앱은 마켓에 등록된 지 2주 만에 100여 명이 다운로드한 앱이 되었다. 이 앱을 통해 한 명의 시민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다.

가수 김장훈 씨가 그랬던가? “기부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나도 이 앱을 만들고 나서 재능기부에 중독된 것 같다. 이제는 “서울시 분실물 찾기” 앱을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많은 이들이 내가 만든 서울시 공공 앱을 사용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 보니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 International Open Data Day 후기

김 학 래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 하여 International Open Data Day! 전 세계 70여 개 도시에서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의 행사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준비됐습니다. IT분야의 캠프나 해커톤은 이제 한국에서도 보편적인 행사입니다. 하지만 오픈 데이터를 주제로 생각합니다.



오픈 데이터가 낯선 현실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 데이터 광장’은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한 International Open Data Day는, 열린 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 데이터의 수집에서 시각화까지

참가자의 전공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Open Data Day는 참가자가 스스로 데이터 세트를 결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하여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IT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참가자를 고려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최소화했고, 구글 퓨전 테이블을 이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서울시 독거노인의 구별 현황, 한강 주변 유동인구 현황, 4대 질병에 대한 사망률,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가 정제되어 구글맵에 시각화되었습니다.

## 커뮤니티와 새로운 협업 모델 개발

한국에서 오픈 데이터 커뮤니티는 오픈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정부기관과 협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커뮤니티의 자유로움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은 새로운 협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오픈 데이터의 개방을 넘어, 활발한 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바로 시민과 정부/공공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고, 서울시는 그런 커뮤니티의 역할을 도와 오픈 데이터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실무담당자의 참여와 대화

커뮤니티 행사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후원을 하고 있지만,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International Open Data Day에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와 대화하고, 오픈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은 참가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픈 데이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개방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커뮤니티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수상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항상 우리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친구 공공 데이터

박진수

매섭게 몰아치던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한결 따뜻해진 봄날, 문득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면 한 번씩 소풍갈 장소를 검색해보거나 교통 정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공 데이터가 우리 곁에 친구처럼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군 입대를 하기 전에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던 공공 데이터. 그런데 군 전역을 하고 나서 단 2년이라는 시간 만에 활성화가 되어, 이제는 늘 가까이에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공 데이터를 접할 때는 놀라움 반, 기대감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할수록 편리성, 시간절약 등의 이점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배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듯 쓰고 있는 공공 데이터, 대체 어디서 제공해주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인터넷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저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간, 월간, 전체 인기 데이터 순위였습니다.

‘어! 내가 생각했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곳이 교통에 관련된 자료들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속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 둘 살펴 보았습니다. 서울시 간행물 정보, 학교 도서관 개방 정보, 유동인구 정보 등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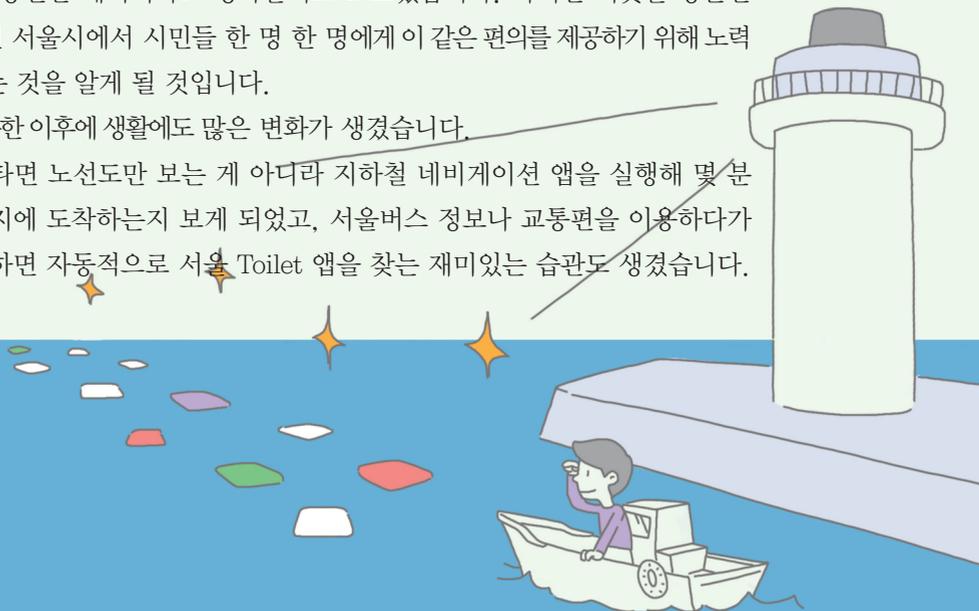
이외의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혼자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열되어 있는 ‘활용 갤러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도 내가 몰랐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앱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앱은 ‘서울시 싸게싸게’입니다. 소비자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자기 동네에서 바로바로 최소 가격의 제품을 찾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마케팅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항상 싸고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흥미가 생겨 해당 앱을 다운받게 되었는데, 절약하는 재미와 함께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행정, 환경, 안전, 교육, 복지, 교통 등과 같은 많은 공공 데이터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의 시민들은 그저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시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노선도만 보는 게 아디라 지하철 네비게이션 앱을 실행해 몇 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보게 되었고, 서울버스 정보나 교통편을 이용하다가 용변이 급하면 자동적으로 서울 Toilet 앱을 찾는 재미있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걷고 싶은 길이나 분실물 센터와 관련된 앱들을 다운로드하여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주위의 가족, 친구들은 이와 같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의 존재 여부, 활용법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낍니다.

요즘은 공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디어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항상 북적거리는 지하철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간혹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시민들이 지하철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유도한 후 그것을 통해 지하철 안에서의 '인구 밀집도'를 보여주는 공공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퇴근길이나 등하곳 길에 시민들은 자기가 타려는 지하철 각 칸의 인구 밀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용자가 적은 칸을 활용하여 북적임이나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분실 위험, 혹은 만약의 경우에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보다 많은 공공 데이터가 활성화된 열린 데이터 광장을 저희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애용자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아!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발전에 이바지할 많은 기회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열린 데이터 광장을 배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우리 곁에 우뚝 서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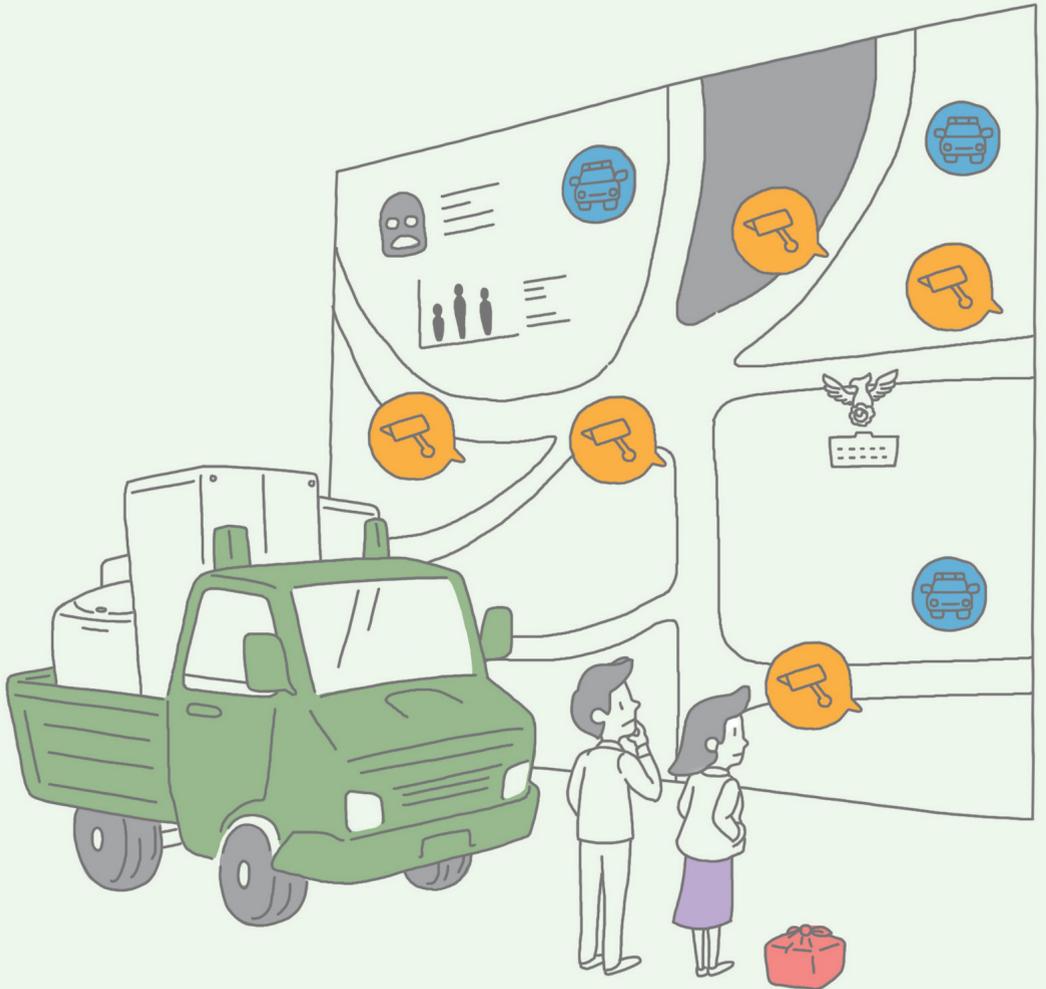


우수상



## 서울시민을 더 스마트하게 해줄 데이터는?

오 정 환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시민입니다. 공개된 여러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고, 그 소감과 함께 해외 현황을 곁들여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데이터 소재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열린 데이터 광장 플랫폼 사용 시 개선되면 정말 편하겠다 싶은 점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의 데이터 세트 수는 최다종이나, 지도상 표시를 해주는 등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공개 데이터 세트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미국의 뉴욕 750건, 샌프란시스코 150건에 비해 서울시의 60종 960건(2012년 기준)은 단연 앞섭니다. 하지만 유용성 면에서 봤을 때, 위치정보를 함께 포함해 지도상 표시를 해주면 더욱 편해질 데이터가 많습니다.

범죄 현황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데이터 기준으로 살인 발생 179건/검거 179건, 강도 발생 570건/검거 459건 등으로 나옵니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www.datasf.org](http://www.datasf.org))의 사례를 보면, “Map: Crime Incidents – Previous Three Months”가 13,678views로 Popularity 1위입니다.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확대해보면 거리 단위로 범죄 발생현황을 체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 우범 지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Crime Finder’([data.gov.uk](http://data.gov.uk))라고 해서 영국 전국 범죄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주변 범죄를 시각적인 증강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요조사 결과(“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서울시 오픈 데이터 전략과 숙제”,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2012. 8.) 요청 1위는 주차장(총점 101.1점, 백분율 10.4%)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주차장(구별), 주차장(동별) 데이터 세트는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개소와 면수가 숫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유용성이 정말 커지고 스마트폰 앱도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중독 현황 데이터도 식당 이름과 발생건수까지 지도상에 찍히면 유용할 것 같고 관련 앱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서울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공되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이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사례 기준으로 보면, 세금정보, 지번별 전기사용량, 부동산매매정보, 식당위생평가, 도로상태, 실시간 화재, 건축허가 정보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번별 전기사용량 등은 이번 서울시의 ‘윈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수집,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서울시에 유용할 데이터는 주택 가격 동향입니다. 영국 데이터센터에서는 UK House Prices라고 해서 주택 가격 동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택 가격의 동향을 지역별, 연대별로 시각화하여 서비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청에서 구청, 지하철, 버스의 분실물센터를 통합하여 실시간 검색으로 제공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플랫폼이 조금 더 접근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외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국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해보았는데, 해외의 경우 모두 회원가입 없이 접속한 그 웹페이지에서 새로운 창을 띄우지 않고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거쳐야 했고, 또 접속 웹페이지에서 보지 못하고 바로가기를 눌러 새로운 인터넷 창을 띄운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면 사용빈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UN 산하 ITU에 의해 ‘세계 대표 스마트도시 서울’에 선정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세계 1위로 가길 바랍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장려상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디딤돌이자 샘물이 될 것 같아요

장영준

은퇴를 하고 집안에서 머문 지 1년 반이 지나니 이제 온몸이 근질근질하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나이 들어 실패가 두렵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다행히 지인이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실전창업 과정을 알려주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커피전문점 창업과정을 수강했다. 그리고 나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들기도 한다. 내친 김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커피 및 베이커리 전문점 창업 관련 교육을 더 찾아 수강하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막막하다.

‘우선 서울시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까?’

서울시 홈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교육’, ‘커피’, ‘창업’ 같은 검색어를 넣어 통합검색을 해보니 검색결과가 무척 단편적이고 다소 동떨어진 정보만 뜬다.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아무리 둘러봐도 시나 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에 관한 전체적이고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만한 링크들이 보이지 않는다. 조금은 실망스럽다.

교육을 추가로 듣는 일은 일단 제쳐두고, 거주지 주변인 관악구 낙성대역에 커피와 베이커리를 동시에 취급하는 전문점을 열기 위한 사전 현장 조사를 해보기로 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음을 확인했는데, 그래서인지

경쟁업체의 수도 무척이나 많아 보였다. 이제는 이들 낙성대역 주변 커피, 베이커리 전문점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이 데이터가 낙성대역에 매장을 열지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를 확인해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서핑을 했다. 거기서 '서울 통계(stat.seoul.go.kr)



라는 링크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 통계’ 사이트를 서핑 하다가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이라는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의 분류체계 필터가 10개에 불과하고 단계도 한 단계에서 끝나 디렉토리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기 위해 ‘매출액’, ‘자영업’,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의 검색어를 치니 아무것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다시 분류체계 필터의 ‘산업경제’ 필터로 들어가 개방된 자료 100여 개를 일일이 살펴보니 ‘서울시 사업체 현황(산업별, 구·동별)’이 눈에 띈다. 데이터를 받아보니 산업별 분류가 내가 원하는 베이커리, 커피전문점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매출액 정보나 이익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열린 데이터 광장 사이트의 분류체계가 서울 통계 사이트의 통계 D/B보다 분류 체계도 덜 구체적이고 단계도 1단계에 그치고 있어 디렉토리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들을 찾아들어가기 힘들고 검색기능도 무척 약해 보였다. 개방을 기다리고 있는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원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내친 김에 열린 데이터 광장 사이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하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고자 ‘교육’, ‘강좌’ 등의 검색어를 쳐본다. 검색결과 상위를 클릭 하여 들어가 보니 서울시 산하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강좌 프로그램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흠, 아직 부족하지만 열린 데이터 광장을 앞으로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겠군. 더군다나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 더 많은 정보가 개방되고, 개방된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민간의 유능한 재주꾼들이나 단체들이 여러 방식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면 사회적 효율이 무척이나 높아지겠는 걸.”

유능한 개발자들이 제공된 Open API를 활용해 우리 같은 자영업 예비 창업자들

에게 꼭 필요한 현장 정보들을 적절하게 스크린하고 가공하여 제공해준다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무척이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나 같이 창업을 꿈꾸는 미래 자영업자와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자영업자들에게 창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세세한 정보들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디딤돌이자 샘플을 통해서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민간의 정보서비스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자영업 폐업율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더러,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가공하여 공급해주는 새로운 정보서비스업 등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정보들을 내가 직접 활용하려한다면 검색기능이 훨씬 강화되고 분류체계도 서울 통계 사이트 이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동네에 기반을 두어 영업하고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데이터들이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관하여 제공된다면 이용이 훨씬 용이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디딤돌이자 가칭 ‘공공 데이터 가공 정보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샘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각만 해도 유쾌한 일이다.



PART 2  
흐르다

장려상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피아니스트, 서울시 공공 데이터로 생활을 연주하다

이 준 화

피아노+컴퓨터 = ??

피아니스트와 공공 데이터, 일견 엉뚱한 단어의 조합같이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거기엔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이면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알찬 정보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진 신혼 6개월 차 32살 새색시 이준화라고 합니다.

예체능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IT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은 최신 트렌드 관련 정보를 찾고 서로 공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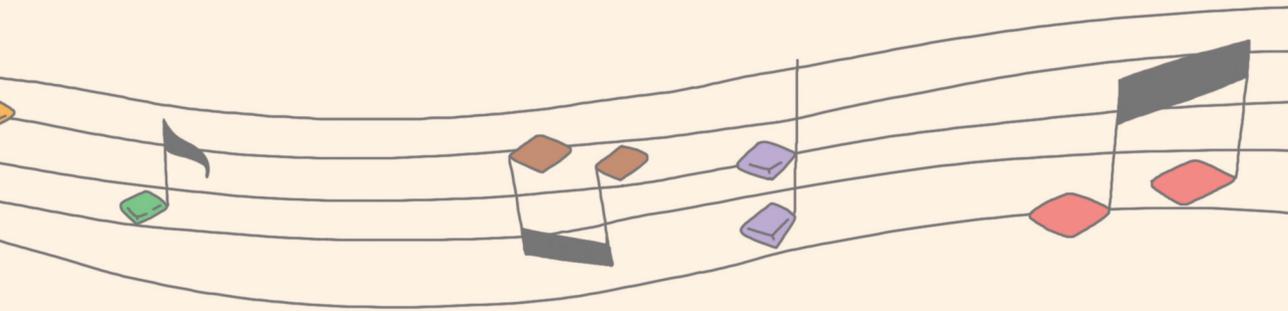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했습니다. 특히 쇼핑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아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인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수소문하여 알아내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정분야에 국한된 관심정보가 아닌 일상정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신혼집을 물색하는 것부터 인테리어, 조명, 가전, 가구 등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관련 정보를 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엄청난 정보량에 압도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필요한 정보를 찾고 나서도 정보의 출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와 연관된 정보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니 각종 신고에 공과금 납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깜짝 선물과도 같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교통, 쇼핑 정도에만 머물렀던 제 관심사가 복지, 육아, 세금, 시설, 안전 등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곳이 없을까?’

결혼준비 과정에서 고생한 경험을 떠올리며 고심하던 차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소통광장을 접속하면서 ‘열린 데이터 광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접속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흩어져 있던 음표가 오선지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흐뭇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기능들이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섬세하게 디자인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포털 서비스의 인기검색어 순위와 같이 시기별(주간, 월간, 전체) 인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 점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해당 파일을 원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하거나 링크 공유를 통해서 사용자의 활용가능성을 높인 점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가장 탁월했던 기능은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시민 모두와 공유하는 ‘활용갤러리’였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인구가 1천 만을 넘어선 현재, 공공 데이터를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기능을 두루 접하면서 생활이 스마트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IT 인프라 강국 대한민국’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진행정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참신한 시도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려상



## 아름다운 데이터

고미령



우연히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방문하게 되었다. 공공 데이터를 다양한 구성과 배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애플리케이션도 소개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데이터’나 ‘정보’라는 개념은 그저 신문이나 방송매체, 책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 날씨, 교통, 문화, 일상 생활정보, 구인구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편리함은 물론 생활의 가치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서울시민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일반인보다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여러 장애우의 모습이 떠오른다.

3년 전, 충무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지하철을 타려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으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시각장애우 학생이 더듬더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학생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위험한데, 혼자 다녀도 되겠어요? 어디까지 가요? 가는 곳까지 도와줄까요?”

“아,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대충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시각장애우 학생이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역 밖으로 나간 뒤에는 수많은 차들이 위험하게 다니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는지 궁금했다. 만약 버스를 탄다면 정류장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또 자신이 탈 버스는 어떻게 구분해서 타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학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따라 내렸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뒤따라 걷기 시작했다. 도우미견(犬)도 없이 기다란 나무 지팡이만 ‘틱, 틱’ 두들기며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결국 나는 작정을 하고 학생의 손을 잡아주며 동행하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얼굴도 뵈지 못한 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네요.”

학생은 내 쪽으로 머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고맙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나는 학생이 무사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서야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의 일을 지금 이 순간 떠올리며 생각해본다. 이제는 이미 널리 활용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하철 마법사’나, ‘서울버스 앱’이 그때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나는 그 학생의 스마트폰에 출발점과 도착점을 설정해준 뒤 도착역에서 벨이 울리도록 도움을 주어 혼자서도 쉽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또한 ‘버스 앱’의 여러 유용한 기능을 통해 버스 대기시간, 버스 도착시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몇 번째 블록에 첫 횡단보도가 있는지에 대한 알림 서비스까지 되었다면 그 시각장애우 학생은 내가 동행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편리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력과 함께 공공 데이터의 힘을 활용한다면 장애우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속 편리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공 데이터, 나는 이것을 ‘아름다운 데이터’라고 부르고 싶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지만, 이제는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편리한 기능으로 자리 잡은 공공 데이터! 이 아름다운 데이터가 몸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 장애우들에게도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정상인은 물론이고 장애우에게도 삶의 힘이 되어주는 ‘열린 데이터 광장’, 그 속에서 사랑의 온기가 전해져오는 것만 같다.

PART 2  
흐르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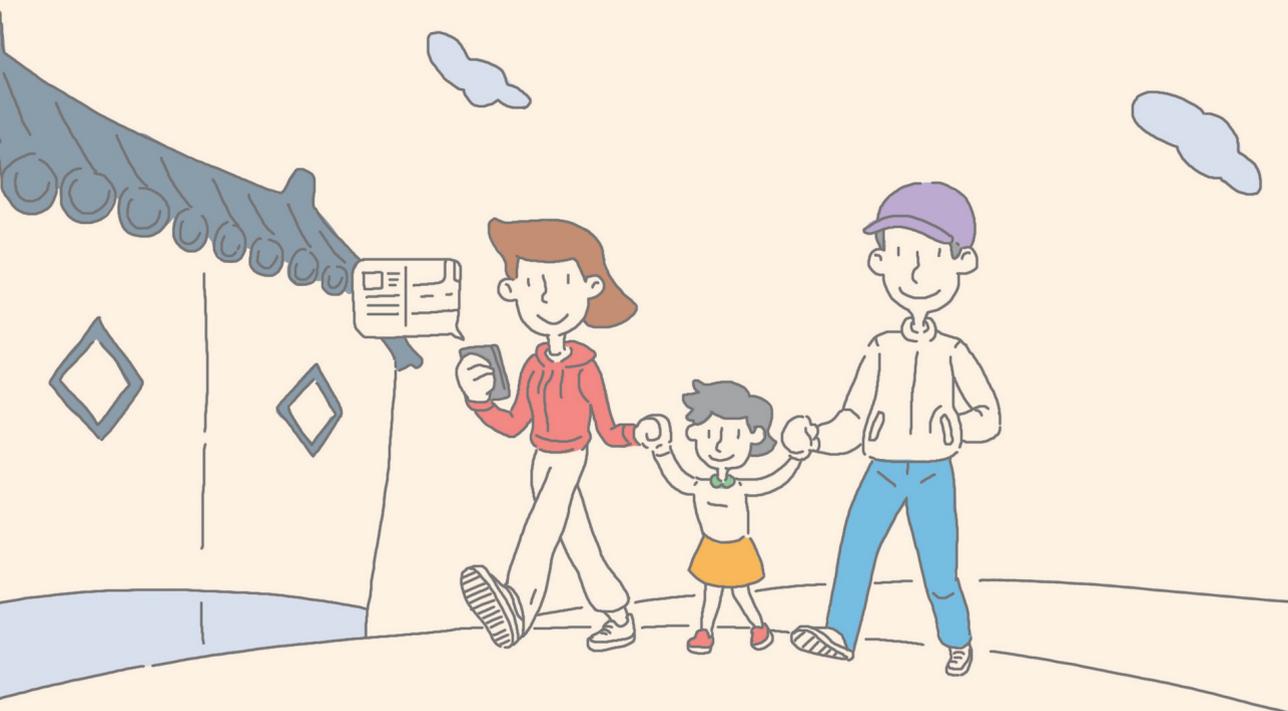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우리 가족의 행복한 주말 고민

김 은 숙

태어나 처음 하는 서울생활. 처음에는 지리도 잘 몰라서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다 시피 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서울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도 저기에 한 번 가 봐요.”

아이들도 서울에 왔으니 TV로만 보던 곳들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 그럴까?”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서울의 명소라는 곳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63빌딩, 명동, 압구정동, 동대문패션타워, 남대문시장, 한강유람선, 어린이대공원, 여의도공원, 남산타워, 인사동 등등. 시골사람들이 서울에 처음 오면 한 번씩 들러본다는 곳 위주로 다녔다.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부터는 시야를 넓혀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용산전쟁기념관, 북한산, 국회의사당 등 보다 의미 있는 장소들을 찾아 방문했다.

남편이랑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다. 특히 아이들은 책에서만 보던 국회의사당을 직접 보는 것에 신기해했고, 한강유람선을 탈 때도 너무 좋아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다는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약간의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한양의 골목길을 보고 우리의 전통음식, 전통예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가보고 싶었다. 그동안 가본 곳은 왕궁처럼 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거나 지방 어느 대도시에도 있는 인위적인 느낌의 문화유적지들뿐이었다. 지정된 관람료를 내고 입장해 역사적 사실을 설명 받는 것은 학생들의 방학숙제로 ‘우리 문화유적 탐구하기’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인사동에 가서는 너무나 상업적으로 보이는 거리의 모습에 적지 않는 실망을 하기도 했다. 과연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일까?

고민 끝에 서울 토박이인 회사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울에서 옛 한양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한 여자 사원이 말했다.

“그야 당연히 북촌한옥마을이지. 거기에 가면 조선시대의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전통음식 등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퇴근을 하자마자 인터넷에 들어가 북촌한옥마을 검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대부분 ‘북촌8경’, ‘북촌도보관광’ 등 관광안내 위주로만 되어 있었고, 체험은 한옥이랑 공방 정도만 언급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싶었던 나의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체념하듯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다.

‘혹시 여기에 가면 북촌한옥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의심과 기대를 반반씩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했다. 우선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들어가니 서울시에 관한 각종 공공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북촌한옥마을에 관한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밑져도 본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북촌”이라고 검색어를 쳤다. 그런데 바로 “북촌한옥마을분류별 한옥정보”라고 떴다. 깜짝 놀라 클릭을 하자 정말 북촌의 한옥건물별 건물이름, 주소, 소유주, 연락처, 홈페이지, 건물연대, 문화재보호지정내용, 심지어 개방시간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너무나 귀한 정보였다.

“바로 이거야!”

나는 기쁜 마음으로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검색하고 주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큰소리쳤다.

“북촌한옥마을에 관한 정보 다 알아냈어. 토요일에 나만 따라와!”

“당신 뭘 보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아 그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때문이지.”

“그게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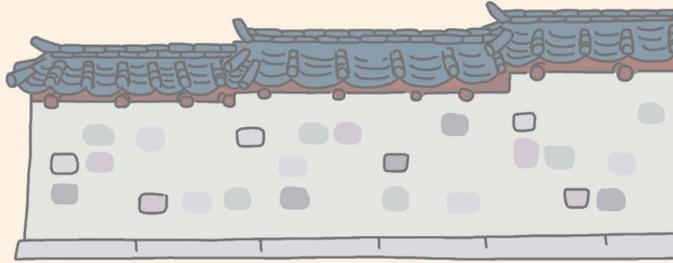
“서울시에 관한 모든 정보와 기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야.”

“그런 것도 다 있어?”

남편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 토요일, 우리 가족은 카메라를 챙겨두고 전철을 타고 가서 안국역에 내렸다.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돌아서는 순간 두 눈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멈추게 했다. 길게 뻗은 돌담길이었다. 한국 전통무늬를 간직한 담장과 좌우로 펼쳐진 멋스러운 한옥 기와지붕!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이었다. 나는 셔터를 마구 눌러댔다. 그날 우리 가족은 기대대로 한옥과 전통음식체험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매듭,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옷칠 등의 체험을 계속했다. 특히 전통체험을 좋아하는 두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다.

하나의 체험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가족은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컴퓨터 앞으로 자연스럽게 모인다. 아이들은 “엄마, 나는 이번엔 닥종이 인형공방 체험하고 싶어.”, “아니. 엄마, 나는 한복체험 하고 싶은데?”라며 욕심 각신 싸우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으로 인해 주말마다 우리 가족은 즐거운 선택을 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런 즐거움을 선사해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PART 2  
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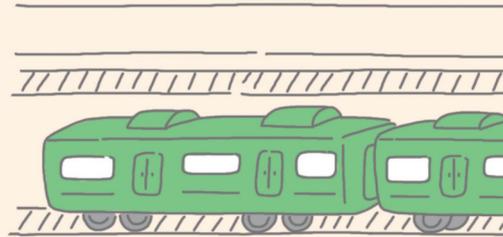
장려상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서울은 ICT 종결자

강 경 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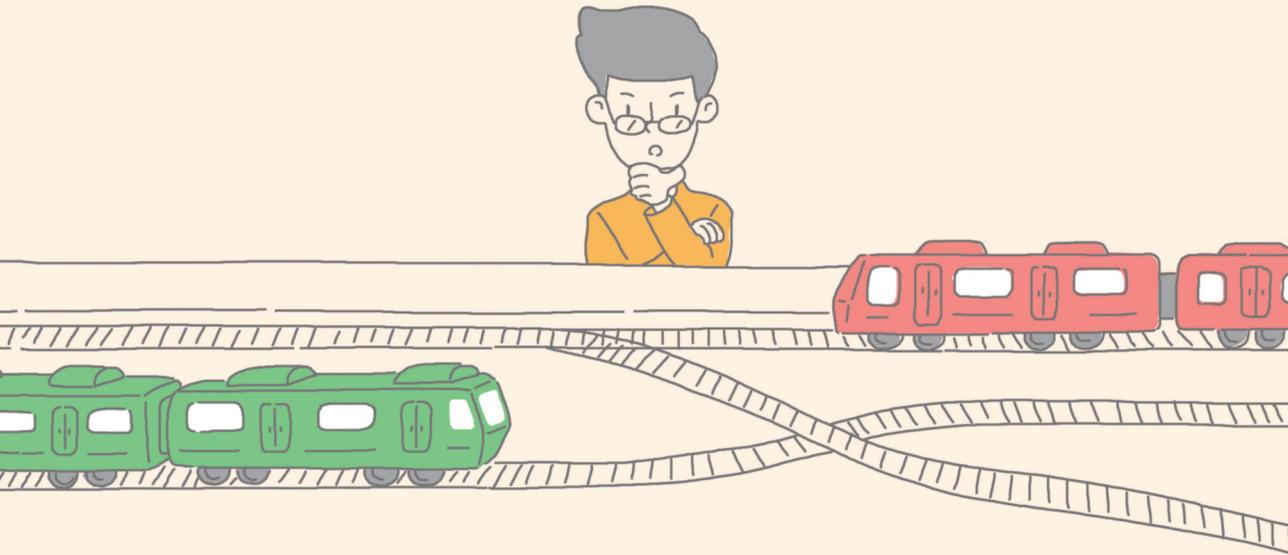


일평균 850만 명이나 이용하는 지하철 앱. 그런데 왜 경로 찾기, 열차 시간표, 역정보 같은 평범한 기능만 있는 걸까? 자 동차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이미 대부분 국가의 많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하철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아무도 못하고 있을까?

모바일 벤처기업 멀린의 서비스 개발은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과 같은 우수한 IT 환경을 갖춘 한국에서 지하철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IT 강국의 수치가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지하철에서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네비게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용자 만족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특히 지하에서 사용 가능하며, 동시 사용자가 2만 명 이상 가능하고, 완벽하지 않은 지하철 무선통신에서도 가능한 위치기반기술의 개발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다.

한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를 해결하면 기존에 해결되었던 것이 다시 문제가 되는, 그야말로 길고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12년 6월 1일, 지하철에 최적화된 지하철 네비게이션 앱인 “지하철 마법사(MetroWizard)”를 서비스하게 된 것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진정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의하여 완성된다고 하였던가? 서비스 오픈 이후 우리 앱은 사용자들의 새로운 기능 제안으로 이제 편리성, 기능, 완성도, 품질에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던가? 세계에서 유일한 지하철 네비게이션 앱 “지하철 마법사(MetroWizard)”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벤처회사와 계약을 맺고 뉴욕시에서도 서비스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과 같은 우수한 IT 환경이 있었기에 세계 최초 지하철 네비게이션 앱 서비스 창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서울은 생각이 ICT로 이루어질 수 있는 “ICT 종결자” 도시인 것이 분명하다.



장려상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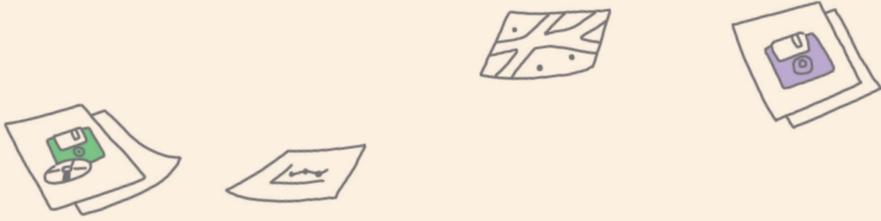
# 자전거 타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같이 타자!

이 순 용



2013년도 새로운 학기가 개강했던 지난 3월, 누군가에게는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쁠 4학년이지만 저는 20대의 마지막을 취업의 삭막함보다는 특별함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친구들을 모아놓고 무모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이 벚꽃이 날리는 날씨 좋은 주말이면 서울 강변에 굽어져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신나게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며 둘러본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혼자만 느끼기에는 너무 아쉬운 경치라 생각하여 후배들에게도 서울 시내 이곳저곳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소개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 동아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전거 타기 동아리를 만들어보지 않을까?”

“그거 좋죠. 그런데 선배님은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나는 대학 생활의 추억도 취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침 학교에는 자전거 관련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정식 동아리로서 ‘자전거 타기 동아리’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 사유와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승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전거를 선후배들과 함께 타고 싶었을 뿐이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측에서는 자전거 타기처럼 단순 스포츠 활동 동아리보다는 영어 공부, 취업 동아리 등 학술 동아리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동아리 창설 계획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역시 자전거 타기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었을까?’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중 우연히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의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열린 시정 2.0의 개방, 공유, 소통을 모토로 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신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 내의 다양한 전문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알기 쉽도록 Sheet 형태, 통계적 데이터는 Chart 형태, 자전거 정보는 Map 서비스, 사업체 정보는 File 형태 등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혹시나 동아리 신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검색을 하다가 많은 양의 기초 통계 자료와 동아리 창설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만한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면 충분하겠어.’

저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동아리 창설의 기본 자료로 Map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웹 사이트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 공간정보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자전거 루트를 계획할 수 있었고, 자전거 관련 지원 시설을 파악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 작성에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탄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자전거 동아리 창설 승인을 학교 측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데, 이것만큼 기분이 상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취업과 학업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바퀴를 굴러가며 중랑천에 흘려버리곤 합니다. 우연하게 알게 되었지만 저의 오기가 현실이 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주말, 저희 동아리의 자전거 루트는 태릉입구를 시작으로 해서 중랑천을 따라 서울 숲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동아리의 모든 자전거 루트 계획의 시작과 끝은 정확하고 편리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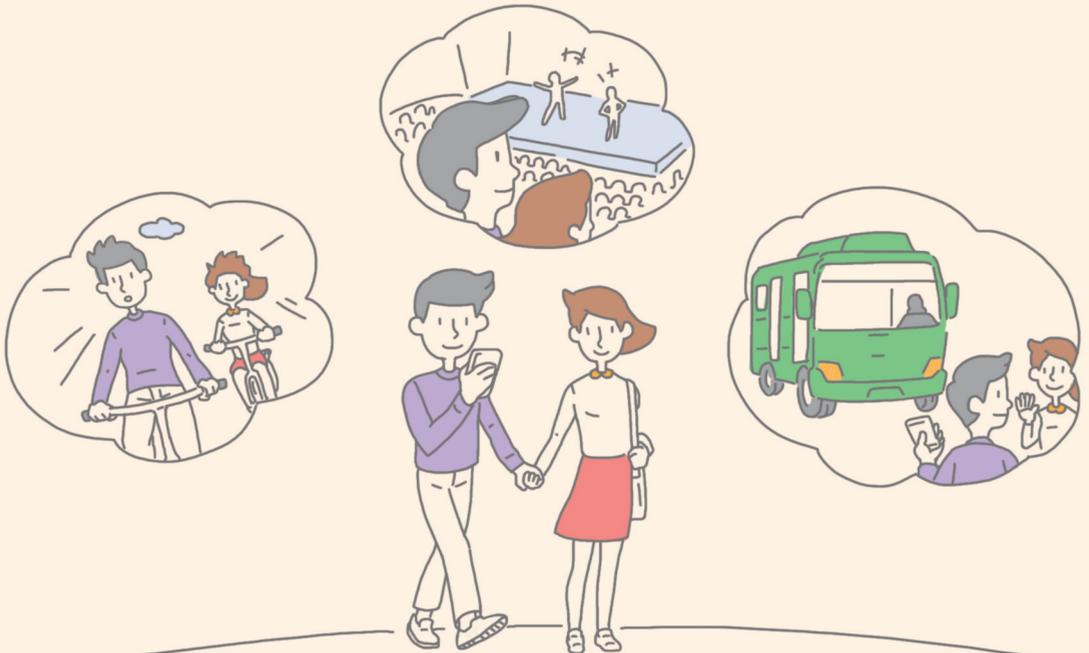


장려상



# 당신과 함께했던 오늘, 6월 19일 성민이의 일기

황 성 민



끝날 것 같지 않던 기말고사가 끝났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바로 오늘만을 기다렸다. 여자 친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여자 친구를 볼 생각에 열심히 뛰어갔다. 그런데 중간에 학교에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라 왔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 내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 사무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스마트폰에 깔아놓았던 'Hi Seoul 앱'을 켜다. 앱을 통해서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니 약속시간에 조금도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여자 친구. 여자 친구는 오랜만에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했다.

“그래? 그럼 ‘120 다산콜센터 앱’으로 어디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볼까?” 앱의 전화걸기 기능을 통해 연결된 상담원은 친절하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위치와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상담원이 알려준 대로 이촌대여소로 향했다. 자전거를 빌린 후, ‘서울을 달린다 앱’을 켜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 자전거를 반납할지 계획을 세웠다. 출발은 이촌! 그리고 도착은 난지! 그렇게 우리는 한강바람을 맞으면서 데이트를 했다.

드디어 도착한 난지. 자전거를 반납하고 꿀맛 같은 킷라면을 먹으며 쉬고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시계를 보니 겨우 오후 6시. 아직 헤어지기는 아쉬운 시간이었다.

“우리 이제 뭐할까?”

“대학로에서 공연 보고 싶어. 지금 가면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럼 알 수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고 싶다는 여자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e문화북덕방 앱’을

켰다. 어떤 작품을 볼까 살펴보다가 여자 친구가 예전부터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보기로 했다. 앱을 통해 공연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을 확인하고 버스를 타러 갔다. 앱에서 제공해 준 교통정보 덕분에 공연시간 30분 전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다.

재미있게 공연을 보고 나오니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여자 친구의 집까지 함께 가기로 했다. 손을 잡고 가다보니 어느새 여자 친구의 집 앞에 도착해있었다. 그런데 여자 친구의 집은 골목길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특히 주변이 어두워 밤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 스마트블편신고 앱’을 켜서 이 지역에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해줄 수 없는지 글을 남겼다.

‘앗,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어느새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초조한 마음에 ‘서울버스 앱’을 켜서 버스 시간을 확인하니 이제 막차만 남아있었다. 나는 아까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처럼 버스정류장까지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1분 후에 마치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버스가 도착했다. ‘서울버스 앱’ 덕분에 막차를 놓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시험이 끝난 날, 여자 친구와 만들었던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오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그런데 오늘 여자 친구와 함께 이용한 서울 관련 앱들은 모두 서울 데이터 개방 서비스 덕분에 앞으로도 여자 친구와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장려상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개발자의,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시스템

우 주 용

나는 대한민국의 앱 개발자다. 이미 많은 지하철, 도서관 정보 앱이 있지만 내가 개발 중인 앱은 안심 먹거리를 위한 것이다.

여느 개발자처럼 나만의 앱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3~4년 전만 해도 이런 앱은 개인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앱이었지만,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이젠 혼자서도 내가 구상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

만약 열린 데이터 광장이란 공간이 없었다면 과연 혼자서 앱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시간도 배로 걸릴 뿐더러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반영하기 힘들어 개발 도중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서울시의 먹거리 집을 돌아다니며 직접 정보를 얻는다고 상상하니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온다.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Open API들은 사용자 배려가 돋보인다.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서울시의 노력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Open API뿐만 아니라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고객센터는 친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빨리 도입되었다면 하는 아쉬움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개발자로 살아가는 건 힘들다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열린 데이터 광장처럼 “앱 개발자의,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오늘도 나의 꿈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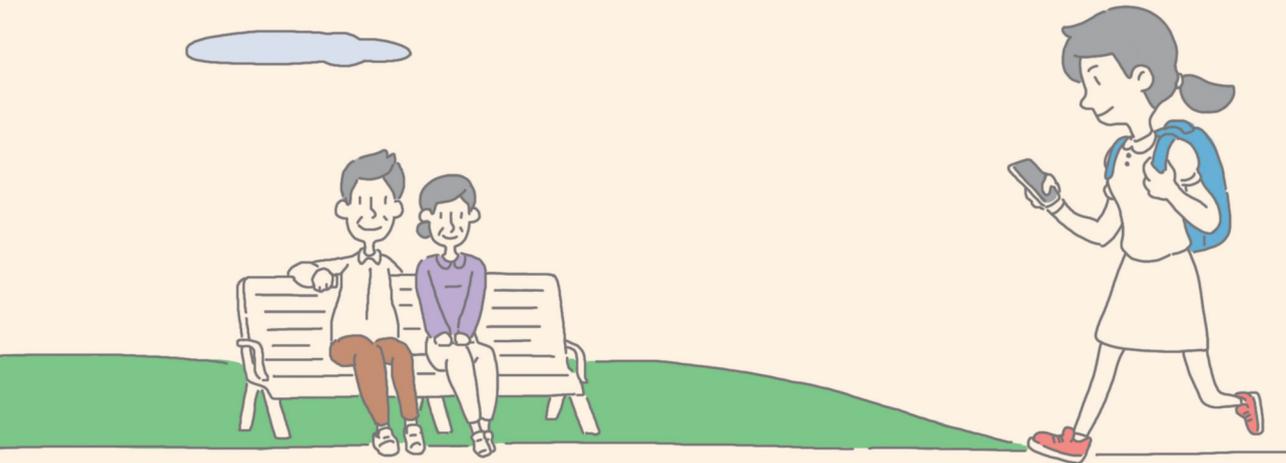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시민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 ‘꿈’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신 예 은

저는 장래희망이 조경가인 고3 학생입니다. 입시준비 때문에 공부하느라 바쁠 때이지만 가끔씩 쉬고 싶을 때면 조경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스마트폰으로 공원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공원 길라잡이’라는 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용이 궁금해서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느낌이 오더군요.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좋고, 공원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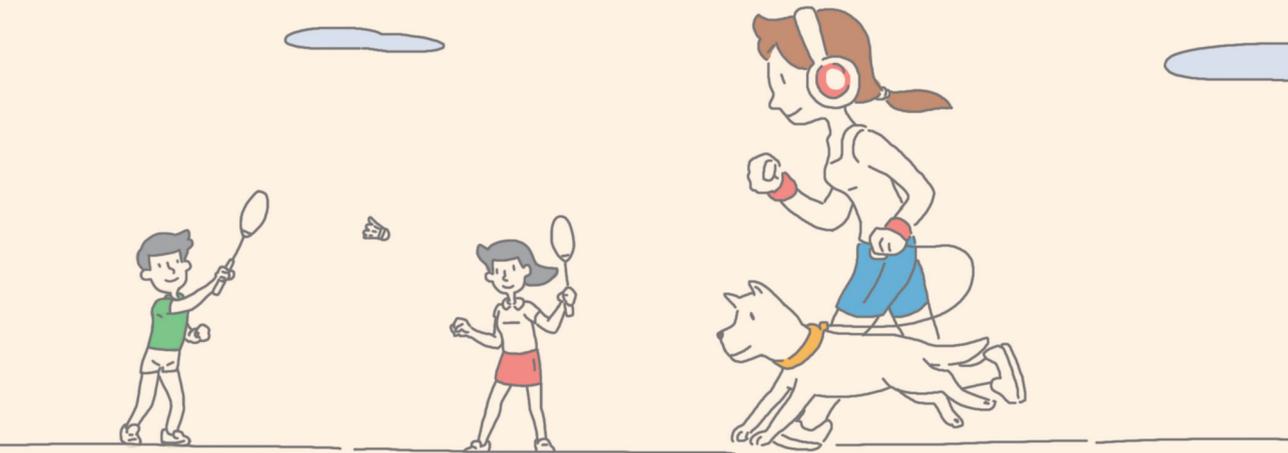


정보도 알차게 제공되고 있어서 제게는 어느새 소중한 앱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용자 대부분의 느낌은 비슷한 모양이에요. 구글플레이의 평점도 5점 만점 이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핸드폰은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던 핸드폰이 고장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을 사주셨답니다. 공부에 방해될까봐 평소에도 스마트폰이 없는 것을 서운해 하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갖게 되니 편리한 기능이 많아 너무 좋더군요.

‘서울공원 길라잡이’를 소개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다시 앱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앱에는 공원을 테마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이 있는지, 잔디쉼터가 있는지, 캠핑이 가능한지 원하는 테마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도검색도 되고, 전화걸기 기능도 있고요. 사용자 리뷰 중에 필수 어플이라고 소개한 소감에 저도 한 표 추천해줬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녹지공간이 적어서 삭막한 도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서울공원 길라잡이’를 통해서 의외로 곳곳에 공원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서울의 공원들을 본격적으로 탐방해볼 계획 이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서울시가 2012년 8월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토대로 제3회 서울시 스마트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공모전에서 ‘서울공원 길라잡이’라는 앱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덕분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홈페이지인데, 누구나 능력이 된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앱이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 너무나 좋은 광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활용갤러리에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앱들이 안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앱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앱 개발자가 장래희망인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홈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제 친구들이 만든 앱이 이 광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흐뭇해진답니다.

좋아하는 앱을 통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고, 나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찾다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만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려상



## 민을 만한 정보를 평등하게

최 세 연

경제학 용어 중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의미의 ‘그레샴의 법칙’이 있다.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칙이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만 할 줄 안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정보가 많은 만큼 그중에는 ‘질 좋은 정보’와 ‘질 나쁜 정보’가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레섬의 법칙에 따르면 ‘질 좋은 정보’는 결국 소수만이 독점하게 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는 대부분 ‘질 나쁜 정보’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불평등의 양상이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바로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를 출처로 한 믿을 만한, 질 좋은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자격의 제한 없이 개방하는 것은 정보의 평등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서울시와 시민이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 나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과 특성상 전공과목의 설계 수업을 할 때 서울시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학기에 ‘대기오염방지 공학’ 수업을 수강했는데, 설계를 위해 서울시의 실제 미세 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다.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여기 저기 찾아보았지만 쓸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 학기는 나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며 졸업 논문을 완성했는데, 논문을 위해 서울시의 GPS자료가 필요했다.

“서울시 GPS자료 구했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보려고,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았거든.”

“그래, 맞아. 서울시 관련 데이터는 거기서 찾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일단 거기서 개방하는 데이터는 믿을 수가 있어.”

친구들과도 의논해보고 교수님과 상담도 해보았는데, 역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그곳에서 찾아서 졸업 논문에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수업자료와 졸업 논문을 위한 ‘단순한 정보’가 아닌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했다. 정보를 찾는 일보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 중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때 좋은 정보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시’라는 출처를 보고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었고, 수업 자료와 졸업 논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나는 단순히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믿을 만한 데이터를 대중에게 개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방 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

2013년 12월 31일 초판 발행

저 자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발행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발행처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주 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3동 3층  
전 화 02 2133 2979  
팩 스 02 2133 1071

편집디자인 유월애 02 859 2278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760-01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 11 5621 027 6

